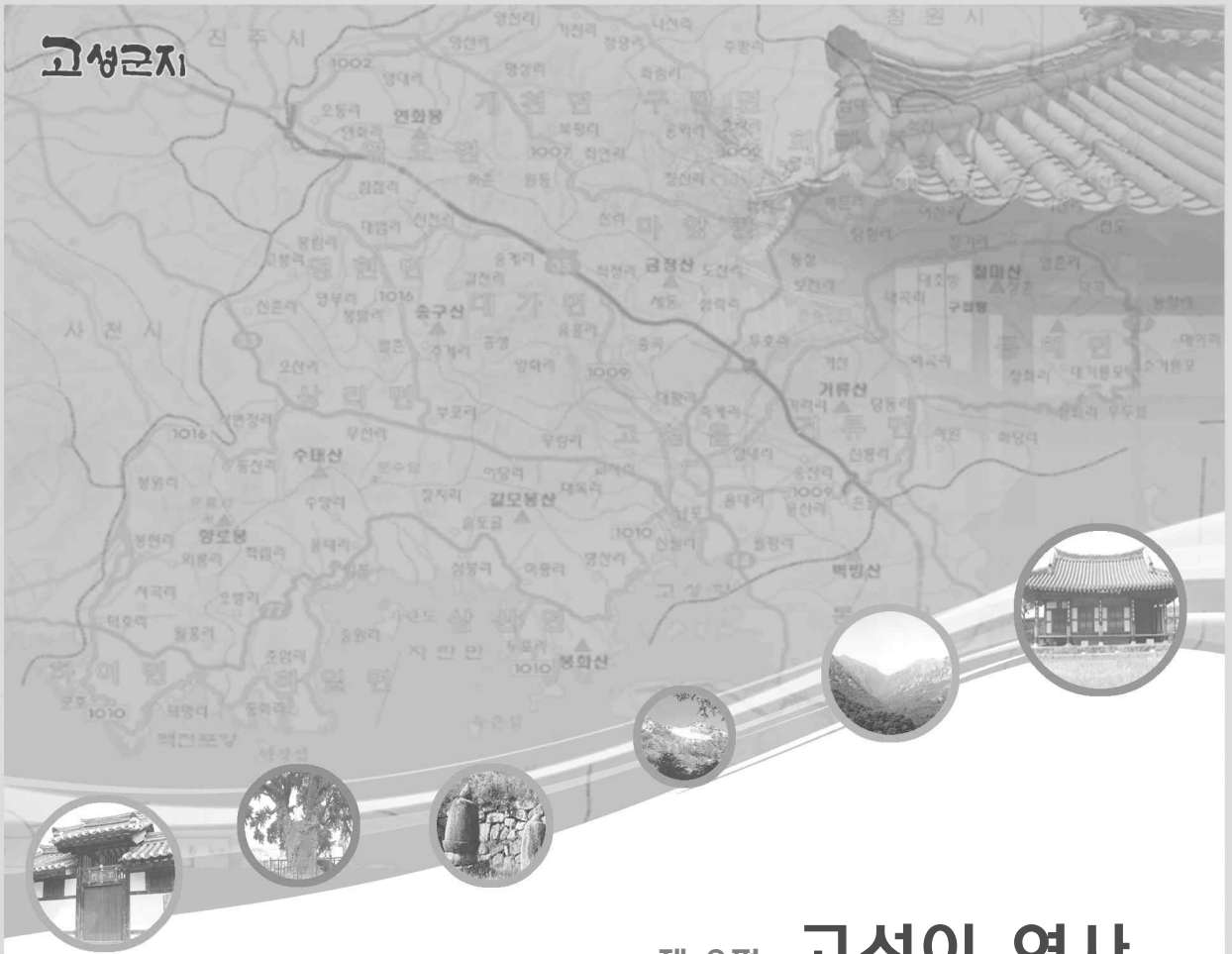


고성군지



제 3편 고성의 역사

선사시대 | 삼국시대 | 통일신라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임진왜란 | 근대



제 3편 고성의 역사

第 1章 先史時代의 固城

선사시대는 문자 그대로 문헌사료가 없었던 시기로 당시의 역사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그 유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타제석기 사용과 함께 수렵, 어로 활동을 하던 구석기시대에 인간 활동이 처음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석기시대 다음 신석기시대에는 마제석기와 토기를 사용하고 부분적인 농경이 행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대변혁이 일어난다. 당시 주민들은 해변과 강안(江岸) 사력(砂礫)지대의 경작지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정착생활이 시작된다. 다음 청동기시대에는 금속기의 사용과 함께 무기(武器)와 농경구(農耕具)의 발달로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신분적으로 계층(階層)관계가 성립되는 등 새로운 사회구조가 형성되며 벼농사를 중심한 본격적인 농경생활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원시종교(原始宗教)와 지배체계가 성립되고 활동범위도 규제되는 등 고대국가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초기철기시대는 역사적으로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철기의 등장과 함께 농업의 발달은 물론 인접지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며 시장경제는 그 초석을 이루고 오늘날과 같은 고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고성의 경우는 처음 시작한 구석기시대 유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성과 인접한 사천시 이금동유적과 진주시 집현면 장흥유적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군내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특히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신석기시대는 그 양상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 관내 하이면 덕명리(德明里)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에서 통영시로 편입된 욱지도(慾知島), 연대도(煙臺島) 등 고성만 연안의 도서지역에서 신석기시대유적이 발견되고 있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경우 최근 고고학적 학술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를 비롯해서 환호, 지석묘, 석관묘 등의 분묘와 그 내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마제석기 등의 유물 특징을 통해서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 초기철기시대는 이미 문헌상에 삼한시대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으로 국명이 등장하고 있어서 선사시대에 해당한다고 말 할 수 없지만 영세한 문헌사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적과 유물 등 고고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그 생활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제 1절 신석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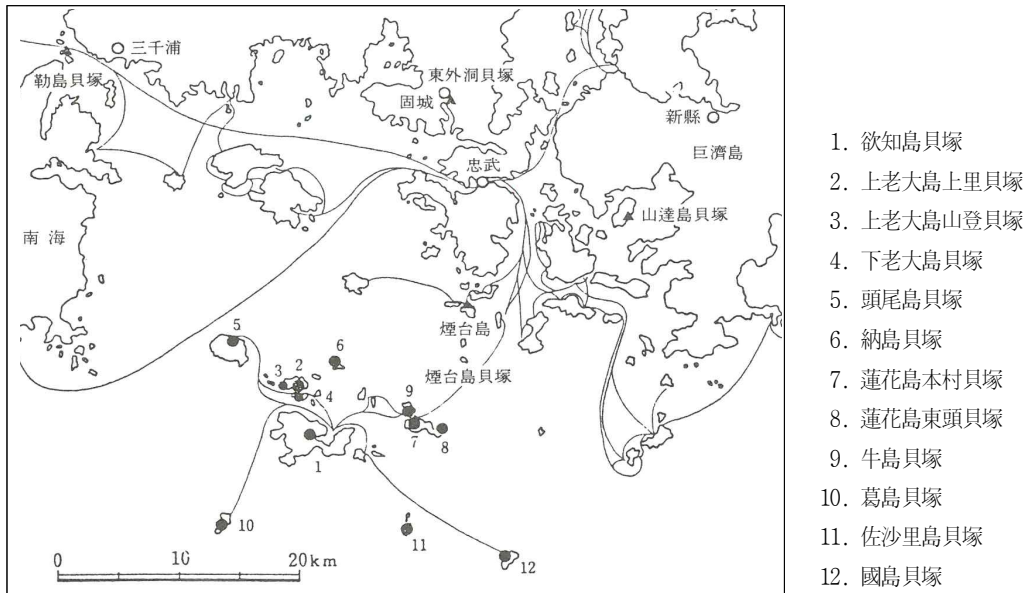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남부지역의 경우 대략 B.C. 6000년 경에 시작하여 B.C.1000년경에는 청동기시대와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석기시대는 토기를 중심으로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¹⁾ 예를 들면 초기에는 융기문(隆起文)토기, 전기에는 압인문(押引文)·자돌문(刺突文)토기, 중기에는 태선침선문(太線沈線文)토기(수가리1식), 후기에는 퇴화침선문(退化沈線文)토기, 말기에는 이중구연(二重口緣)토기를 각각 사용하고 이들 토기와 함께 석기와 골각기도 사용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생활은 수렵과 어로가 중심이었으나 태선침선문토기 사용의 증가가 되면 밭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경이 시작된다. 당시 주민의 이동 경로는 바다나 강과 같은 수로(水路)를 주로 이용하여 대부분의 유적은 강안(江岸)이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내륙지역의 동굴(洞窟)이나 암음(巖陰)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들이 확인 가능한 신석기시대유적은 패총(貝塚), 주거지(住居址) 등이다. 패총은 해안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진개장(塵芥場)인 패총은 그 속에 토기, 석기, 골각기 등의 일상생활용구를 비롯해서 조, 피, 도토리 등 탄화곡물류, 패각, 어골, 수골 등의 자연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당시 문화내용은 물론 식생활과 자연환경에 관계되는 각종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여 고고학적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 당시 주거지는 자연동굴 외에 패총 주변이나 강안의 층적대지에서 원형 또는 장방형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가 집중해서 발견되며 주거지 내에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던 각종 생활도구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신석기시대유적은 부산 동삼동(東三洞), 영선동(瀛仙洞), 범방(凡方), 다대포(多大浦,) 울산 신암리(新岩里), 거제 산달도(山達島), 통영 옥지도, 연대도, 상노대도(上老大島), 사천 구평리(舊坪里) 유적 등 남해안과 주변 도서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현재의 고성군내에서 하이면 덕명리 해안면에 신석기시대 패총이 위치하였다고 전하지만 정식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특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 통영, 거제가 한 때 고성군내에 편입되기도 하였고, 지리적으로 통영, 고성, 사천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성과는 신석기시대 동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성만 전방의 옥지도 부근에는 옥지도 패총을 비롯해서 연대도패총, 상리(上里)패총, 산등(山登)패총, 하노대도

1) 李東注 『韓國先史時代南海岸有文土器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田中聰一 『韓國中·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文化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崔鐘赫 『韓半島新石器文化の研究』, 日本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01.

(下老大島)패총, 두미도(頭尾島)패총, 납도(納島)패총, 연화도(蓮花島) 본촌(本村) 및 동두(東頭)패총, 갈도(葛島)패총, 좌사리도(佐沙里島)패총, 국도(國島)패총 등 각 도서마다 신석기시대 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고성군내의 해안지방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옥지도 근방의 남해안 유적을 중심으로 고성외의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그림(1). 고성만 전방의 신석기시대 유적 분포도

가. 유적의 입지

이곳 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태풍과 해류에 의한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남쪽과 서쪽은 해식애(海蝕崖)를 이루고 있으므로 경사가 급한 암석해안(巖石海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을 비롯한 나머지 만입지역(灣入地域)은 파도가 고요한데다가 삭암(削岩)과 운반작용으로 해류나 주변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이 우세하여 해수면이 점점 알아지면서 모래땅이나 갯벌을 넓게 형성하고 있다. 유적은 주로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입지는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옥지도와 두미도를 방파제로 삼아 그 내만에 위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들 유적은 당시 주민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활유적과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유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패총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어종이나

바다짐승 가운데 근해에서는 그 획득이 어려운 종류가 혼재해 있다는 사실에서 그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내용 중 전반적으로 동질성이 인정되는 공통적인 요소와 자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선사시대 각 유적간의 사회적, 생태적 환경에 의한 유기적인 관련성 파악이 가능하여 당시 원근거리 항해와 어로 및 교역에 대한 자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주거가 가능한 유적과 어로나 수렵을 위한 임시주거로서의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기주거유적

장기주거유적이란 일차적으로 인간이 장기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조건과 시기적으로 전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적의 위치와 범위, 묘제의 존재 등은 장기주거의 보다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지도 주거유적 중 주거 가능유적으로 판단되는 패총은 본도의 육지도패총을 비롯하여 상노대도 상리패총, 산등패총 그리고 연화도 본촌패총 및 동두패총 정도이다. 그리고 연대도패총은 그 전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육지도 유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지도와 상노대도, 두미도를 잇는 지역의 내안으로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내만을 형성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 유적은 육지도를 중심으로 8km 범위 내에 위치하며 각 유적간의 거리는 5km 이내에 속하므로 고대의 항해 기술에 비추어 볼 때 1일 생활권내에 위치하는 공통 지역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임시주거유적

임시주거유적은 인간의 장기 주둔이 불가능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패총의 분포면적도 지극히 협소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해의 유적들은 하노대도패총과 내도패총, 두미도패총이며 외해에 해당하는 유적은 갈도패총과 좌사리도패총, 국도패총이다. 이 유적에서는 육지와 바다짐승을 포함한 수골류(獸骨類)가 V층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토기류는 중기에 해당하는 수가리 I 식의 단사집선문토기와 후기의 봉계리 식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새로운 내륙문화의 유입과 함께 사슴과(科) 동물과 멧돼지 등 수골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임시주거유적은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태선집선문 단계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이전의 수골류는 대체로 유적지 주변에서도 포획 가능한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하노대도유적은 상노대도 상리유적과 근접해 있으면서 동일 생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적들은 전체가 옥지도를 중심으로 외해를 등글게 둘러싸고 있으며 인간이 임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고 있다. 두미도나 납도 같이 내해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은 어느 정도 장기주거도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외해에 있는 유적들은 대체로 주거유적과 같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만(灣)을 형성하고 있거나 자연천(自然川)이 존재하고 있으며 옥지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외해의 참돔·쏨뱅어 등 어류나 고래·강치 등 바다동물의 포획과 같은 장거리 조업이나 긴급 조난시의 대피장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²⁾

표(1). 상노대도 상리패총 층위별 포유류분류

區分	動物名	1	2	3	4	5	6	7	8	9	10	計
陸 上 動 物	멧돼지		1		1	1				1		4
	고라니		1			1						2
	일본사슴	1	1		1	3				1		7
	대륙사슴	1		1	1	1			1	1		6
	수달		1	2	1							4
	여우		2	1	1							4
	개		1	1								2
	쥐類	2	5	3	3							13
時期別小計		4	12	8	8	6			1	3		42
		32				7			3			
海 棲 動 物	고래	1	1	1	1	1				1		6
	물개		1			1				2		4
	강치	1	2	1	1	1	1					7
	바다거북		1	1	1							3
時期別小計		2	5	3	3	3	1			3		20
		13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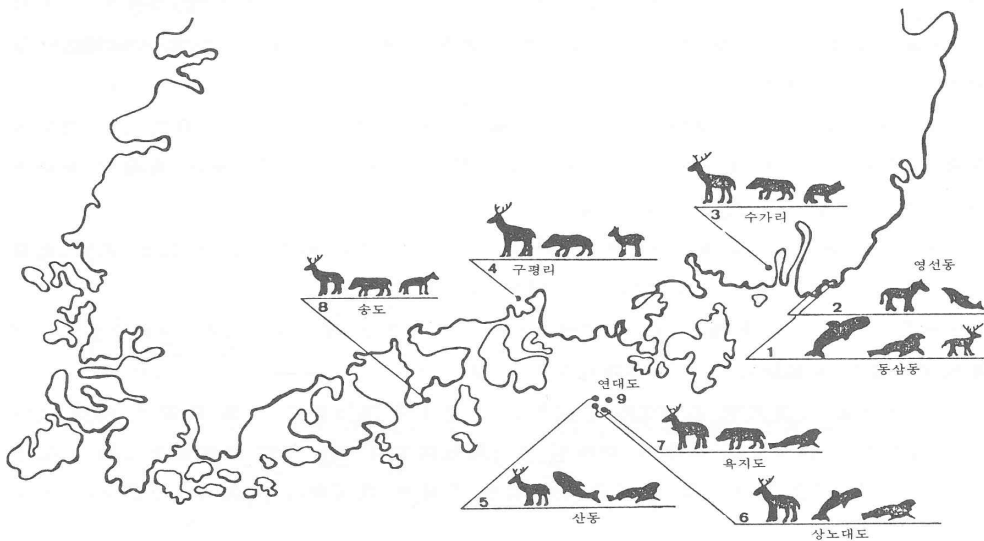
◇ 數字는 最小個體數. 그 외 돌고래 등의 뼈이 出土했다.

2) 崔鐘赫 『韓半島新石器文化の研究』, 日本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01.

표(2). 연대도패층 층위별 포유류 분류

區分	動物名	G ~ Mpit		P ~ Upit		計
		1 ~ 3	4	2	3. 4	
陸上動物	쥐類	2	3	1	2	8
	개	3	3	2	1	8
	너구리	0	1	0	1	2
	족제비科	0	1	0	0	1
	수달	0	0	1	0	1
	산달	1	0	0	0	1
	멧돼지	4	5	3	4	16
	고라니	2	3	1	1	7
	일본사슴	1	6	3	3	13
	말	1	0	0	0	1
時期別小計		13	22	11	12	58
海棲動物	돌고래		1	1	1	3
	돌고래		1	1		2
	돌고래類	3	*	1	0	4
			4120*	13*	1.19*	
	돌고래	0	0	0	1	1
	고래類	1	1	0	0	2
	고래類	1	2	1	1	5
강치	2	1	1	2	6	
時期別小計		7	6	5	5	23

◇ *표는 推骨.



그림(2). 남해안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된 짐승

나. 출토유물의 특징

1) 토기

옥지도와 그 주변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토기는 용기문토기, 세침선문(細沈線文)토기, 자돌문토기, 압인문토기, 주칠(朱漆)토기, 단사선문(短斜線文)토기, 찰흔문(擦痕文)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이며 상노대도 상리패총 출토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문양별로 그 특징을 정리하여 편년적 위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기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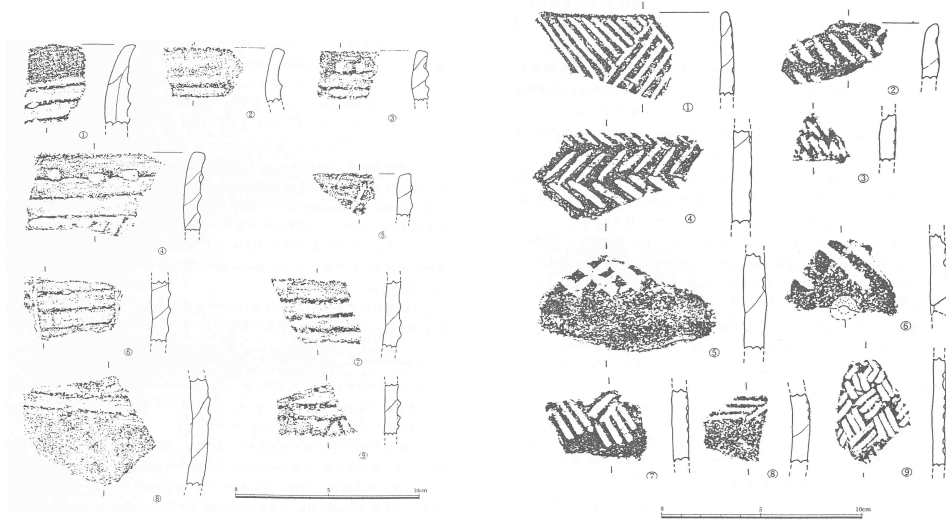
이 지역조사에서 채집된 용기문토기는 옥지도패총과 상노대도 상리패총의 것이 있는데 전체가 용기문이며 크게 평행용기문과 기하학적(幾何學的) 용기선문으로 나누어진다. 평행용기문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다른 문양과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하부에 기하학적 또는 삼각형의 용기문이 있는 경우와 자돌문(거치문鋸齒文), 세침선문(벼문雷文 또는 기하학적문)과 복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부산 동삼동패총을 비롯하여 범방패총, 울산 신암리유적, 여수 돌산송도(突山松島)패총 등 남해안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용기문토기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부분에 빨간색 안료를 이용해 칠한 토기도 많이 확인된다.

② 자돌문토기, 압인문토기

자돌문토기는 용기문토기 단계에서 용기문과 복합되어 나타나지만 최근 조사에서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문양 모티브는 점열문(點列文)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며 용기문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인문토기는 옥지도패총과 상노대도 상리패총에서 출토되고 있다. 전체가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계통의 것이며 구순부(口脣部)에는 대체로 새김문이 시문되어져 있다. 이들의 시문기법은 골각기와 같은 도구로 짧게 지그재그로 눌러 당겨 연속문의 성과를 낸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는 짧은 빗점을 연결시켜 어골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소위 영선동식 압인문도 있다.

이 형식 토기는 대체로 두께가 얇고 소형인 것이 특징이며 호형(壺形)토기류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양 시문기법은 남해안 지역의 독특한 것으로서 용기문토기와 더불어 이른 시기(前期)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3). 옥지도 상노대도패총 출토 토기편 용기문 (좌) 단사선문 (우)

③ 주칠토기

우리나라 남해안 신석기문화의 요소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상노대도 상등패총에서는 최하층에서 용기문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이 있고 동삼동패총에서도 최하층에서부터 출토되며 용기문토기에 주칠이 되어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옥지도패총의 경우에는 3문화층 중 제II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돌산 송도패총의 경우는 대다수가 무문양이다.

주칠토기의 종류는 기하학적 삼각용기선문(三角隆起線文)을 가진 용기문토기와 뇌문토기, 그리고 무문의 주칠토기 등이며 청동기시대의 것들과는 달리 마연(磨研)의 기법이 별로 가미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주칠토기는 옥지도패총과 여수 돌산송도패총, 거제 산달도패총, 울산 신암리유적 그리고 김해 수가리(水佳里)패총의 제3지구에서도 10여 개체분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인근에 있는 부산 범방패총, 다대포패총, 금곡동 울리(栗里)패총 그리고 서생의 신암리패총, 흑산도 하태도 A패총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시문된 문양의 종류는 용기문(점열문, 삼각집선문 등)을 비롯해 용기문+세침선문, 용기문+자돌문 등의 유문토기와 무문양토기에서도 확인된다. 이 주칠토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을 얇게 칠한 것과 두껍게 칠한 것이 있으며 두껍게 칠한 것은 주로 동남해안에서 확인되며 무문양인 경우가 많다.

이 토기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유적과 유물의 특징으로 보아 신석기문화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④ 뇌문토기

뇌문토기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부분에는 주철이 되어 있는데 남해안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비교적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뇌문토기는 단도(丹塗)기법의 것과 어느 정도 set 관계를 가지고 출토되며 서포항(西浦項)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북지역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뇌문토기 상한은 기원전 3000년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남부지역에서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고 있는 단도 토기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로 편년되고 있는 용기문토기의 동체부 구성문양으로서 뇌문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고식으로 편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⑤ 후기점열문

남해안 패총유적에서 평행점열문토기의 출토 예는 드물지만 이 지역에서는 많이 출토되었으며 시문구는 각기 다른 것이다. 상노대도 상리패총에서는 최하층에서도 평행점열문토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행은 남부내륙지역에서 봉계리식(鳳溪里式)토기 단계에 격자문(格子文)토기와 함께 유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로 구연단에서 약 3c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띄운 다음에 대략 4-5열 정도로 평행점열문을 시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기에 출토하는 자돌문과는 시문방법, 시문위치 등 제 속성이 다른 것이다.

⑥ 단사선문토기

단사선문토기는 일반적으로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출토되는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가장 늦은 단계의 것이다. 시문기법은 골각기와 같이 끝이 뾰족한 시문구로 그냥 누르거나, 눌러 짧게 당긴 것으로 자돌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1열 혹은 2열 정도로 평행하게 돌아가며 시문하고 사질성 태토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부지방 전역에서 후기에서 말기 신석기시대 문화 내용 중에 이러한 사질성 태토의 등장은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남부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부산 범방패총, 금곡동 울리패총, 울산 신암리 2지구유적, 거제 산달도패총, 여수 돌산송도패총, 통영 욱지도패총, 사천 구평리패총 등 주로 남해안에 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무문이거나 단사선문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구연부의 끝을 아래에서 위로 누른 흔적 주위를 돌아가며 나타나는 것도 있다. 아마도 토기 제작 시 평평한 바닥 위에서 구연부를 밑으로 하고 토기를 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⑦ 찰흔문토기

이 토기는 끝이 예민한 도구로 그냥 살짝 긁어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남부지방 신석기시

대 중 늦은 시기 요소 중에서는 특이한 것이다.

동일 시문 기법을 가진 토기는 인근의 통영 산등패총과 옥지도패총 그리고 울산 신암리유적, 여수 돌산송도패총의 I·II층에서도 보이고 있다. 사질성 태토를 가진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기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석기

석기는 제작기법으로는 마제석기와 타제석기가 있고 용도로는 수렵·어로구, 농경구, 가공구 등의 공구가 있다. 재질은 대부분 퇴적암 계통이다.

수렵·어로구로는 석촉과 석창을 비롯해 작살·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어망추·浮子(웃기) 등이 있으며, 일부는 흑요석(黑曜石)과 사누카이트제 석기도 있다. 이 석재의 원산지는 대부분 일본 구주로 신석기시대 일본 구주의 승문문화(繩文文化)인들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수렵·어로구는 신석기시대 전체 시기에 걸쳐 출토된다.

농경구는 주로 중기 이후에 나타나며, 종류로는 땅을 일구는 경기구인 보습과 곱배괭이가 있고 조리구인 갈돌과 갈판과 공이가 있다. 수확구로는 정확한 것이 확인되지 않지만 내륙에서는 멧돼지 견치를 이용한 낫과 석겸(石鎌)을 비롯해 원반형(圓盤形)석기 등이 출토하는 것에서 해안지역에서도 차후 출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공구와 공구로는 석부(마제와 타제)를 비롯해 방추차, 석착, 굽개 등이 출토된다.

석기 출토 비중은 초기부터 전기에 걸친 빠른 시기에는 수렵·어로구가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중기 이후에도 꾸준히 출토하지만 결합식조침이 줄어 드는 반면 농경과 관련된 석기가 꾸준히 증가해 신석기시대 생업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골각기

골각기의 소재로는 육상동물, 해서동물, 어류, 조류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육상동물의 사슴과 뼈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멧돼지·수달·너구리·고래·돌고래·강치 등의 포유류와 상어·가오리 등의 어류, 조류가 있다. 부위별로는 주로 사슴과와 멧돼지의 중수·중족골을 비롯해 사슴과의 뼈, 멧돼지 견치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며, 소형 포유류의 이빨과 상어 등의 척추를 이용한 것도 확인된다.

종류로는 석기와 유사해 수렵·어로구, 농경구, 가공구·공구와 장신구가 있다. 수렵·어로구로는 촉과 창을 비롯한 첨두기(尖頭器)와 결합식조침·빗창 등이 있으며 농경구로는 사슴과(科) 뼈를 이용한 뒤지개·괭이를 비롯해 낫 등이 있다. 가공구·공구로는 고래의 추판

을 이용한 것과 포유류나 어류의 뼈를 이용한 바늘과 송곳·톱 등이 있다. 장신구로는 고라니 견치·소형 포유류 이빨·상어 척추를 이용한 수식을 비롯해 포유류의 사지골을 이용한 머리장식·수식 등이 있으며 함경북도 서포항유적에서는 골우(骨偶)와 장식골기 등이 있어 의례구의 존재도 확인된다. 또 조개(투박조개와 피조개)로 제작한 팔찌도 많이 확인된다.

다. 고찰

남해안의 도서지역과 해안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발굴조사와 연구에 의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무대로 주로 활약했던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인들은 생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원거리의 생활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들의 생활환경은 육지도를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을 에워싼 도서지역과의 상호관계성을 맺고 있었던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자료부족으로 결론지어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조사된 유적 중에서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외해 수로를 이용한 원거리 어로 활동과 내륙지역으로 사냥 등 교류가 필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유물들은 이미 발굴조사된 지역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고성을 포함한 남해안 신석기시대 문화를 규명하는데 일조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통한 남해안 지역의 편년적인 위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토기 편년은 한국 신석기문화의 중기로 편년되는 수가리 I식 토기의 영향 이전 시기와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가리 I식 토기 영향 이전에 나타나는 토기는 용기문토기와 자돌문토기·세침선문토기·압인문토기이며 용기문토기는 용기대문과 용기선문으로 구분된다.

즉 상노대도 상리패총 2, 3지구의 경우는 하층에서 압인문과 더불어 평행용기선문과 기하학적 용기선문토기가 동반되고 있다. 그리고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기하학적 용기대문토기도 보이고 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육지도패총에서는 전체 층위에 걸쳐 수가리식토기가 출토되고 평행용기대문토기가 동반되고 있으나 용기선문토기는 교란층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돌산 송도유적의 경우에도 하부에서는 주로 용기선문토기가 나타나고 그 상부에서는 수가리식토기와 더불어 용기대문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노대도 상리패총의 2, 3지구에서 압인문토기는 용기선문토기와 동반되어 나타나고 상부로 갈수록 그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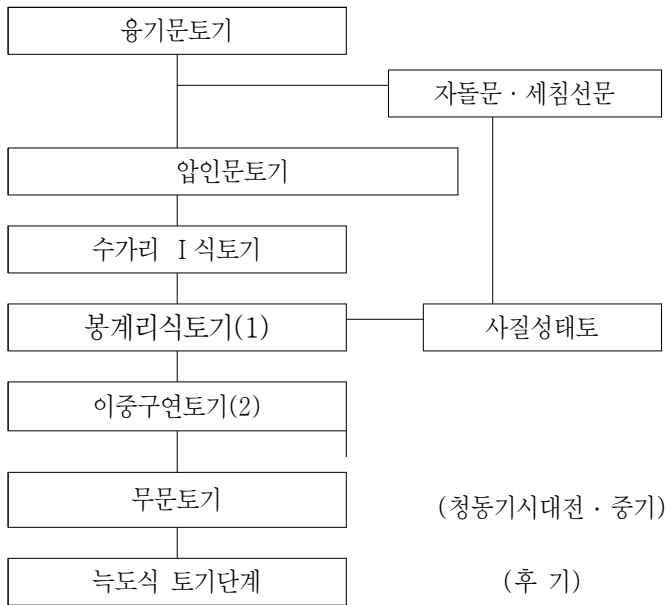
시기부터 나타나는 주철토기는 하층의 평행용기문토기층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지표채집된 기하학적 삼각용기문토기에 주철이 보인다. 그리고 울산 신암리유적에서도 용기문토기와 공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용기문토기의 동체부 문양에 뇌문이 등장한다.

옥지도패총의 경우에는 수가리식토기와 함께 용기문토기, 주철토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용기문토기와 주철토기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까지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에서 무문토기의 존재는 극히 애매한 단계이지만 무문토기문화의 존재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남해안의 경우 신석기문화 이후 새로운 무문토기문화는 늑도와 같은 후기 무문토기 단계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남해안 도서지역 신석기문화의 편년도를 작성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표(3). 남해안 지역 선사시기 편년도



따라서 고성만 전방의 옥지도를 중심한 남해안지역에서는 조기부터 말기에까지 신석기시대 전체기간에 걸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것과 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고성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성 연안은 비교적 파도가 낮고 기후가 온난하여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장기주거생활에는 매우 적합한 환경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향후 유적발견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표(4). 상노대도 상리패총 층위별 패류분류

棲息地	貝種 ^{層位}	2	3	4	5	6	7	8	棲息地	貝種 ^{層位}	2	3	4	5	6	7	8		
沿岸水	外海	전복	○	○	○	○	○		內灣水	內灣	개조개	○	○		○	○	○	○	
	岩礫性	소라(內灣에도)	○	○	○	○	○	○		砂泥質	토굴	○	○	○	○				
		눈알고둥(內灣에도)	○	○	○	○		○		○	內灣	소라(灣外에도)	○	○	○	○	○	○	○
		홍합	○	○	○	○	○	○		○	岩礫性	눈알고둥(灣外에도)	○	○	○	○		○	○
		두드럭고둥(內灣에도)	○	○	○	○		○		○		두드럭고둥(灣外에도)	○	○	○	○		○	○
		기생고깔고둥	○	○	○	○	○			○		참굴(干砂에도)	◎	◎	◎	◎	◎	◎	
		애기삿갓조개	○	○		○						큰뺨고둥	○	○	○	○			
		울타리고둥	○	○	○	○						대수리(灣外에도)				○			
		밤고둥	○	○	○	○						매끈이고둥		○	○				
		참배고둥			○	○						비단가리비			○				
		어깨뿔고둥				○					빌로드북털조개	○							
		대수리(內灣에도)			○	○					돌조개(內灣型)	○							
		말전복	○							內灣	백합	○	○	○					
		진주배말	○	○	○						砂底	꼬막(干砂에도)	○						
		큰배말	○	○	○						內灣	새조개		○		○			○
		바다방석고둥	○	○	○					砂質		큰구슬우렁				○			
		보말고둥		○	○							키조개	○						
		명주고둥		○	○							왕우럭조개	○						
		두드럭배말	○							??部		참굴(岩礫에도)	◎	◎	◎	◎	◎	◎	
		돌조개	○								의干?	반지락(砂底에도)		○					
	빌로드북털조개		○							꼬막(砂底에도)	○								
	沿岸	털담고둥			○														
	砂泥質	국자가리비	1																
	沿岸	대복	○	○															
	砂底																		

※ 1은 1층 출토 패류, ○출토한 패류, ●두번째로 많이 출토한 패류, ◎는 주체 패류(이하 표에서도 동일)

표(5). 상노대도 상리패총 층위별 어류분류

棲息地	漁種 ^{層位}	1	2	3	4	5	6	7	8	9	10
汽水 ~內灣	감성돔		4		1						
汽水 ~近海	농어		○	○	○	○					
近海 ~外洋	색가오리과		○	○						○	
	하스돔과(岩礫)		○		○	○	○				
	양놀래기(岩礫)	1	5	4						2	
	줄복(岩礫)	1	11	1		2		1			
	알락곰치		5	2		3					
	참돔(岩礫)		9	5		1		1	5		
	붉돔		3	1	1	2					

◇ ○는 骨片出土. 數字는 最小個體數.

표(6). 연대도파총 층위별 어류분류

棲息地	魚種 層位	G ~ Mpit		P ~ Upit		備考
		1~3	4	2	3, 4	
汽水 ~內灣	송어	2	22	1	1	
	가송어	1	2	○	○	
	감성돔	3	1	2	3	
汽水 ~近海	농어	1	1	○	2	
	양태	○	○	○	1	
近海 ~外洋	동갈민어(砂泥底)		1	1		MAX
	귀치類(砂底)	10	3	○	1	
	성대(海底)	1	○	○	○	
	넙치(海底)	○	○	○	○	
	조기(砂泥質)	1	3			
	떡붕상어(海底)	○	○	○	1	
	팽이상어(泥質)	○	○	○	1	推骨
	까치상어(海底)	16	10	71*	15*	*齒
	곱상어(海底)	190.5 (381)	17 (34)	3.5 (7)	5.5 (11)	(): 棘實 數의 1/2=MN
	가오리(砂底)	3	2	1	1	
	솜뱅이	10	16	1	6	
	전갱이	1	○	○	1	
	방어	○	2	○	1*	Gpit5層
	농성어	○	○	1	○	
	대구	1	1	○	○	
	참다랑어	○	1*	○	○	*推骨
	새치	○	1*	○	○	*推骨
	고등어類	3*	3	1	2	*齒骨
	참돔(岩礁)	7	22	27	23	
	줄복(岩礁)	1	1	○	1	
	귀노래미(岩礁)	3	○	○	○	
	흑돔(岩礁)	2	1	3	2	
	청상아리	2*	○	1*	1*	*齒
상어	3**	2*	3*	1**	**推骨, *齒	

◇ 數字는 最小個體數. ○는 出土됐지만 最小個體數를 모르는 경우.

제 2절 청동기시대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B.C. 1000년에서 B.C. 300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청동기의 출현 시기는 고조선식동검을 기준 한다면 B.C. 700년쯤 된다고 믿고 있다. 또한 끝나는 시기도 한국식동검을 기준하면 기원전후까지 내려 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3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상한의 경우 청동기 그 자체가 석기나 토기와는 달리 파손되면 녹여서 재생할 수 있다는 점과 작은 파편의 경우에는 곧장 산화되어 버림으로서 초기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갖

고 있다. 하한의 경우는 철기의 출현시기가 언제이며 철기와 함께 사용된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동기시대라는 개념은 청동기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무문토기나 마제석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라는 의미가 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³⁾

청동기시대의 문화 내용은 이와 같이 복잡하다. 앞선 시기인 신석기시대나 구석기시대가 주로 채집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유동적인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청동기시대는 논농사를 중심한 생산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경작지 주변을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 정착생활을 이룬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생활도구에 있어서도 토기, 마제석기, 목기, 금속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주거지의 위치는 경작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 또 사후 무덤으로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 토광묘를 사용하며 농경은 밭농사에서 논농사 중심으로 바뀌어 진다. 원시종교가 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정착된 주민과 종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제정 일치(祭政一致)의 고대국가라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런 청동기시대의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공통적 현상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청동기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예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발굴조사 성과에 의하면 일제시대 금속병용기시대라는 허구를 증명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사이에 청동기시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고조선도 청동기시대의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북한자료 입수가 소원하여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실을 심도있게 다룰 수 없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앞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성군내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유물산포지를 비롯해서 입석⁴⁾, 주거지와 지석묘, 석관묘, 무문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유구석부 등이다. 이를 우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거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지표면을 일정 깊이로 굴착한 다음 그 속에 기둥을 세우고

3) 심봉근 『韓國青銅器時代文化의理解』. 동아대학교 석당문고 4 동아대학교출판부.1990.

4)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기둥 위에 다시 지붕을 가꾸는 소위 수혈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수혈식주거지는 주로 그 평면 형태를 자료로 하여 사용시기와 분포지역을 파악하는 고고학적 하나의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것은 장방형 평면을 가진 대형의 것으로서 수혈 내부 벽면을 따라 주혈이 촘촘히 배치되고 바닥 중앙에는 판석으로 조립한 상자형 노지(爐址)가 2-3기씩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말각장방형이나 방형의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후기가 되면 방형이나 말각방형 바닥 중앙에 장타원형 수혈을 두고 그 양쪽 또는 사방에 기둥자리를 가지는 소위 송국리형(松菊里型) 주거지가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평면이 원형으로 바뀌어지면서 낙동강유역까지 확산되고 다음 단계의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울산식으로 명칭되는 장방형 평면을 가진 수혈의 한쪽 모서리에 짙은 구상(溝狀) 유구가 부착되는 수혈식주거지가 유행한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성을 분명히 한다 할 수 있다.

한편 고성관내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지표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하이면석지리유적과 구만면 효락리유적이 있으며⁵⁾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상리면 무선리유적과 거류면 신용리유적, 고성읍 울대리 유적이 있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모두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최근조사에서 확인된 울대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또는 중기로 편년되는 장방형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1) 상리 무선리(武仙里)유적⁶⁾

무선리유적은 200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고성-자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상리면 무선리 575-23번지 일대에서 발견되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조사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식 주거지 4기와 용도미상의 수혈 5기가 각각 확인되고 그 내부에서 무문토기와 석기 등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가 수습되었다. 그 중 1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으로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과 그 주위에 주혈을 배치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송국리형이다. 크기는 직경 560cm, 잔존깊이 26cm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을 두고 그 주위에 일정 간격으로 주혈(柱穴) 4주를 사방에 배치한 4주식 건물지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석기 등이 중앙의 타원형 수혈을

5)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6)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武仙里遺蹟』學術調查研究叢書 第39輯 2005.

중심으로 그 주위에 흩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수혈 외곽 동쪽에 3주 서쪽에 2주의 목주흔(木柱痕)이 확인된 점이다. 내부의 4주는 지붕을 가구(架構)하기 위한 주혈로 생각되지만 외곽 주혈은 용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지붕 보강을 위한 장치이거나 아니면 출입구 시설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하지 않다.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무문토기는 용형(甕形)과 발형(鉢形)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발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토는 조질의 점토에 장식과 석립이 혼입된 전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이며 직립구연(直立口緣)에 평저부(平底部)를 가진 것이다.

석기는 5점이 수습되었다. 점판암제의 부리형 석기 2점과 미완성품 3점이다. 이 부리형 석기는 진주 대평리 어은(漁隱)2지구와 옥방(玉房) 7지구, 9지구, 사천 이금동유적 등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유적을 중심으로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⁷⁾ 다음 2호 주거지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바닥 중앙에 위치한 타원형 수혈과 그 주위에 4주식 주혈이 배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거지도 송국리형이 분명해 보인다. 평면 타원형으로 직경 607cm, 잔존깊이 25cm 크기이다. 유구내부에서 삼각형 석도편과 무문토기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그 중 무문토기 저부는 평저이고 적갈색 조질의 것으로 전기한 1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발형토기와 동일 특성의 것이다. 삼각형 석도는 남쪽 벽면 근처에서 수습되었다. 점판암제로 전·후면과 배면(背面)에 마연흔이 뚜렷하다. 배부와 인부(刃部)는 직선이며 상호 교인(交刃)으로 편인(片刃)몸체에 끈을 매달기 위한 구멍이 양쪽에 있는데 천공(穿孔)은 양쪽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구멍 상단에 직선상의 홈이 한줄 있는데 전·후면이 동일하다. 잔존깊이 7.3cm 폭 4.3cm 두께 0.6cm이다. 3호 주거지도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위치하고 그 주위에 13주의 주혈이 배치되어있다. 대부분의 주혈은 정형성이 인정되지만 일부는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용도 판단이 어렵다. 내부 칸막이 시설이나 기존 목주의 보강을 위한 장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면 원형으로 직경 375cm, 잔존깊이 12cm의 송국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단도마연토기 저부편과 무문토기편 3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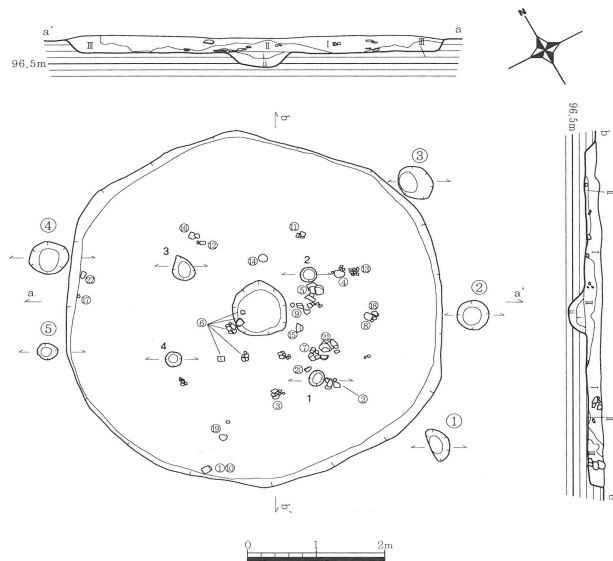
당시 수습된 무문토기편은 모두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고 기벽이 얇으며 내벽은 회색, 외벽은 단도마연 또는 적갈색을 띤 특징을 가진 것이다. 자세하지 않지만 동일체분이 과손된 것으로 추측된다. 남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나 후기에 유행하는 홍도 또는 단도마연토기와 흡사한 특징의 것이다. 4호 주거지는 평면 팔각형으로 잔존 최대경 386cm 길이 8cm정도이다. 대부분 훼손되고 일부 남은 것인데 바닥 중앙의 타

7)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1999.

원형 수혈과 그 주위 주혈 일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구조 확인은 어려웠으며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함께 조사된 수혈 5기는 구근식물 저장혈이거나 구상유구의 말미부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용도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주거지와 관계되는 유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으로 무선리유적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주거지와 유구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을 참고하여 사용시기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송국리형 주거지 평면과 여기에서 수습된 유물이다. 유물은 무문의 옹형토기와 발형토기, 단도마연토기편 등의 토기와 삼각형석도, 부리형석기, 미완성석기 등이다. 4주식 송국리형 주거지는 인접한 사천이금동유적⁸⁾을 비롯해서 진주 대평리유적⁹⁾ 등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부리형 석기나 삼각형석도, 무문의 옹형 또는 발형토기, 단도마연토기도 전기한 유적에서 흔히 수습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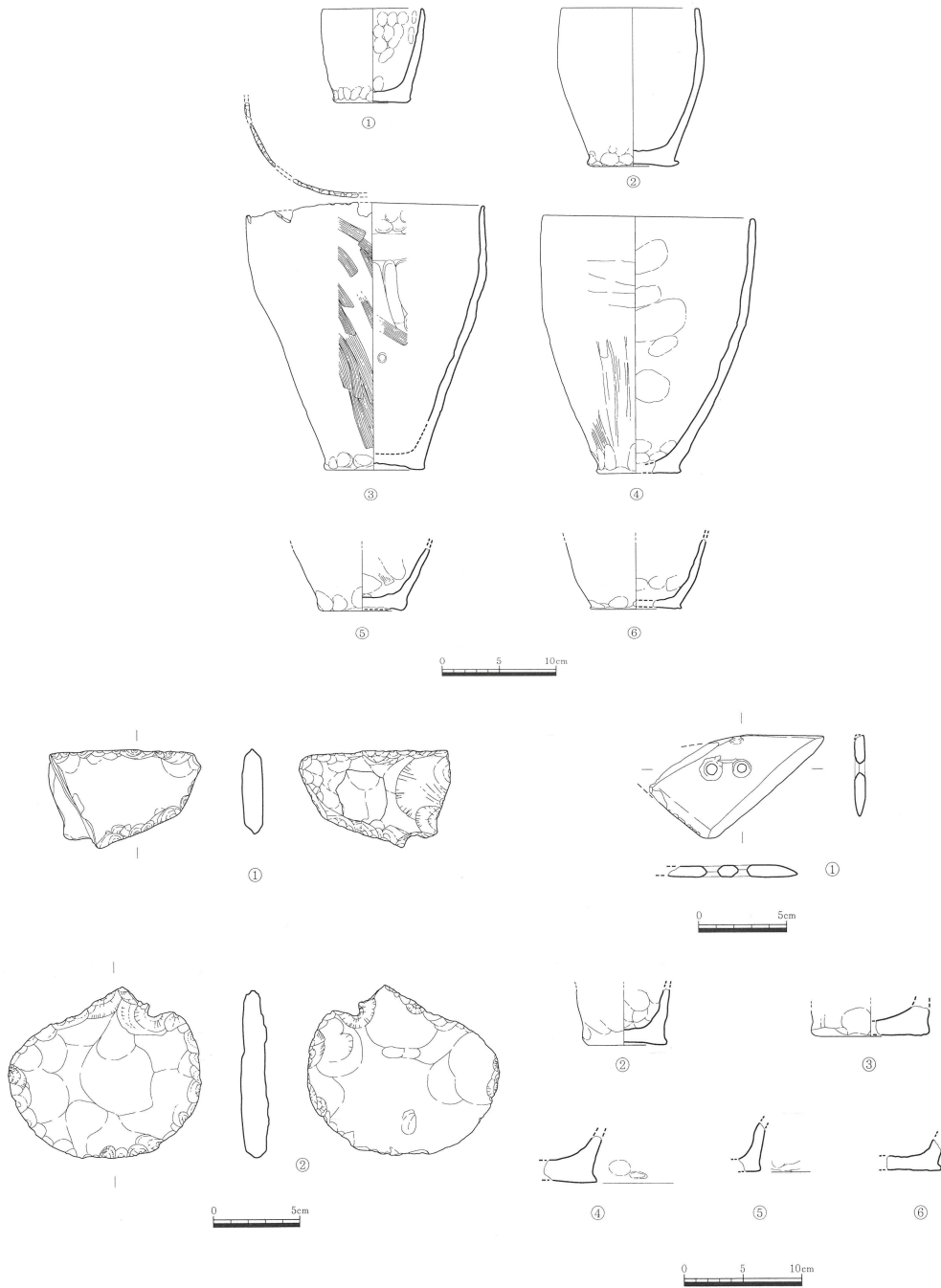
특히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삼각형석도의 출토와 평면 원형의 4주식 송국리형 주거지, 그리고 주변에 분포한 기반석과 개석식지석묘 등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그 사용시기는 대략 청동기시대 후기(B.C.500~B.C.300)전반 정도로 편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 무선리 1호 주거지

8)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천이금동유적』 2003.

9)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그림(5). 무선리 1호(상, 하좌) 2호(하우) 출토유물

2) 거류 신용리(新龍里)유적¹⁰⁾

신용리유적은 거류면 신용리 147번지 일대를 (주)성광에서 계획한 마동농공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분포 범위가 방대하여 I, II, III지구로 나누어 2007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I 지구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변과 나머지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삼국시대 석곽묘 및 석실묘 18기, 고려, 조선시대 민묘 53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는 문암산(門岩山)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말단부 사면에서 발견되었다. 그중 1호주거지가 위치한 곳은 I 구역 북쪽 경계부근 해발 45.8m지점으로 동쪽에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가 있다. 주거지가 경사면에 위치하여 아래쪽 절반정도 바닥이 유실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잔존부위는 평면 원형이며 직경 475cm 깊이 43cm 크기인데 내부 바닥 중앙에 원형 수혈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수혈 주위에서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일반 석재와 함께 발형 무문토기편 4점과 납작한 숫돌이 수습되었다. 바닥 중앙에 위치한 원형 수혈을 참고하면 주거지의 형태가 송국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앙의 수혈 주위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송국리형 주거지 가운데는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¹¹⁾ 여기에서 수습된 무문토기 저부편 4점은 모두 평저의 발형토기편으로 추측된다. 공통적으로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이 혼재하고 바닥 외면에는 성형시 생긴 지두흔(指頭痕)이 있으며 황갈색을 띠는 보통 소성의 것이다. 표면 산화로 자세한 특징 파악이 어려우나 당시 다른 지역에서 수습되는 무문토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수습된 지석(砥石)은 길이 45cm 폭 40cm 두께 18cm의 편평한 사암질이다. 2호 주거지는 남쪽 사면(斜面) 말단부의 해발 41.3m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남동쪽 바닥부분이 후대에 대부분 유실되었다. 평면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직경 465cm 깊이 43cm 크기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기에서 확인된 주거지 2기는 모두 원상이 훼손되어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1호 주거지 바닥 중앙에서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고 수습된 무문토기편의 특징을 감안하면 역시 송국리형 주거지가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용시기도 전기한 무선리 주거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고성에서 발굴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소위 송국리형으로 분류하는 4주식 수혈주거지이며 그 사용시기는 청동기시대후기로 편년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되어 확인된 고성읍 울대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10)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 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11) 김재호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와 분포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장방형 주거지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그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고성에 인접한 진주대평리를 비롯한 상촌리, 내촌리 등 남강담수몰지구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도 동일한 특징양상을 가진 것으로 이들 자료를 참고하면 고성지역 당시 사회구조와 일상생활, 문화내용 등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나. 지석묘

고성에는 경남에서 지석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즉 서쪽의 하이면 석지리, 봉현리, 덕곡리, 사곡리, 월흥리를 비롯해서 하일면 학림리, 오방리, 수양리 삼산면 장치리, 미룡리 상리면 척번리, 무선리 동쪽의 동해면 양촌리, 내산리 구만면 광덕리, 용와리, 효락리 마암면 보전리, 신리, 석마리 거류면 감서리, 용산리, 은월리, 거산리, 가려리 고성읍 교사리, 덕선리, 수남리 대가면 금산리, 암전리, 유흥리 영현면 신분리 개천면 예성리 회화면 어신리 등 군내 전역으로 68개소에 달하는 유적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지석묘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묘제 중의 하나인데 그 특징은 지하 묘실 상부에 대석을 올려 놓고 봉분으로 삼은 형태이며 이를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분묘는 비록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남부, 즉 스칸디나비아반도 남부에서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대서양연안 국가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지중해연안 국가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까지 부분적이긴 하지만 각개의 특징을 갖고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북부유럽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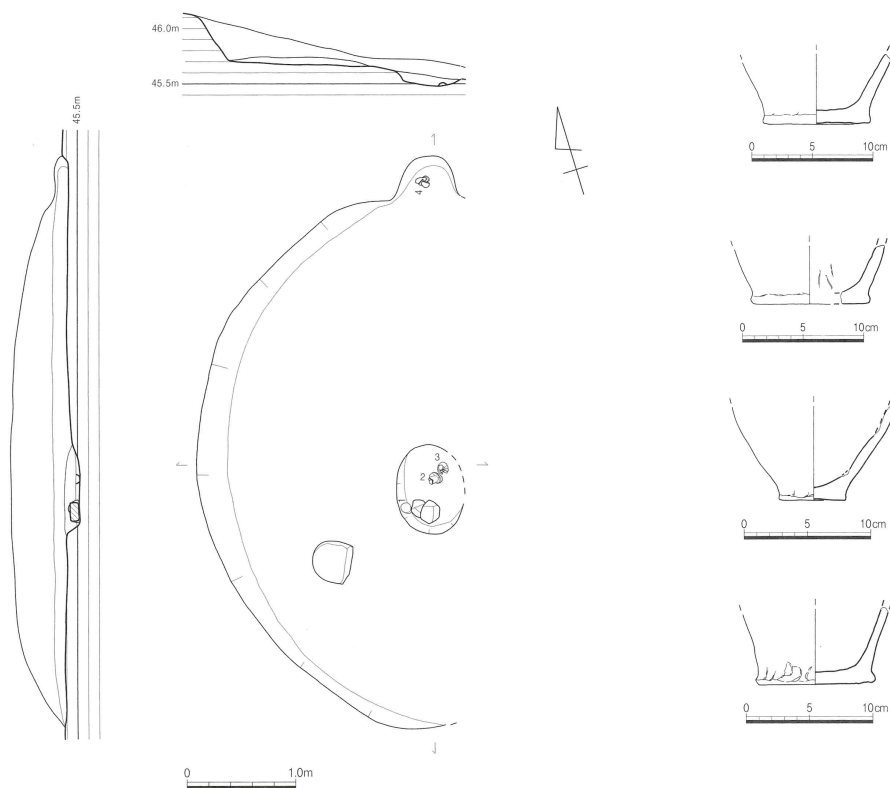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되다시피 널리 분포하며 그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숫자상으로는 1만여기에 달하며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¹³⁾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고성지역과 마찬가지로 한 두기씩 개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한 지역에서 여러 기가 군집하고 있다. 지석묘가 위치한 곳은 강화도 삼거리¹⁴⁾나 전라도 일부 지방처럼 산의 능선을 따라 위치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하천유역이나 평지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청동기시대 지석묘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벼농사를 중심한 논농사를 주로 행하였으므로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12)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13) 이영문 『고인돌 역사가 되다』 학연문화사. 2014.

14)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國立中央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6冊. 1967.



그림(6). 신용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 주위에 지석묘를 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지석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전라도지방인데 한곳에 수백기의 예가 확인되기도 하며¹⁵⁾ 서북지방인 황해도 황주천 일대의 경우에는 폭 300m~400m, 길이 약 3km 정도의 별관에 10여기를 단위로 하는 지석묘군이 1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¹⁶⁾

분포상으로 본 우리나라 지석묘는 태백산맥을 척추로 하는 남서의 산맥 간에 끼여 있는 수많은 하천유역과 해안평야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국의 경우는 지석묘의 탁자식 형태를 따서 석봉(石棚)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중심부인 중원에서는 아직까지 지석묘의 실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방인 길림성과 요령성의 경우는 탁자식지석묘가 대부분이지만 절강성, 산둥성의 경우는 기반식 지석묘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⁷⁾ 그리고 절강성 이남의 경우는 아직까지

15) 崔夢龍「全南地方所在 支石墓의 形式과 分類」『歷史學報』第28輯. 1978. 이영문『고인돌 역사가되다』학연문화사. 2014.

16) 黃基德「黃海道 黃州郡 沈村里 긴동支石墓」『各地遺蹟整理報告』1963. 黃基德, 李元珍「黃州郡沈村里 靑銅器時代遺蹟發掘報告」『고고민속』1966.

확인된 것이 없으며 근래 대만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지식묘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근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일본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서북 구주(九州)지방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대부분 기반식지석묘에 속하고 시기적으로는 죠몽(繩文)문화 말기, 야요이(彌生)문화 초기인 B.C. 5세기말에서 기원 전후 시기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일본 지식묘의 후향성을 말해주고 있다.¹⁸⁾ 즉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문화 가운데 일본으로 전파되어 야요이문화를 형성시킨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¹⁹⁾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지식묘의 특징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용어와 형태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용어와 형식

① 용어

- A. 상석(上石) : 지식위에 올려놓은 지식묘 표식이 되는 대석이다. 종래 개석, 탕석(撐石)으로도 명칭 되어 왔다.
- B. 지식(支石) : 상석하에 놓인 괴임돌로서 개석식지석묘일 경우 이것이 없다.
- C. 보석(補石) : 지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식 외측 주위에 기대거나 쌓아둔 돌을 말한다.
- D. 부석(敷石) : 상석하 지식 주위에 깔아둔 자갈돌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평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구획지은 것이 나타나 구획석이라고도 한다. 종래 적석, 포석 등으로 명칭 되어 왔다.
- E. 개석(蓋石) : 지식묘의 하부구조 중 묘실의 뚜껑이 되는 돌이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 F. 묘실(墓室) : 지식묘의 하부구조 중 매장주체가 안치되는 곳으로 종래 석실이라고 자주 사용되어 왔으나 석관, 옹관, 토광 등 다른 형태의 것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서 묘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G. 상석(床石) : 묘실의 바닥에 깔린 돌이다.
- H. 석관(石棺) : 4매 내지 그 이상의 판석을 상자형으로 조립한 묘실을 의미한다.
- I. 석곽(石槨) : 수매의 할석이나 판석을 눕혀서 축조한 묘실을 의미한다.
- J. 토광(土壙) : 문자 그대로 지면을 방형 내지 장방형 또는 그 이외의 형태로 파서 만든

17) 三上次男 『滿鮮原始墳墓の研究』 東京, 1961. 許玉林 『遼東半島石槨』 1994.

18) 沈奉謹 「日本支石墓의 一考察」 『釜山史學』 3輯일 1972.

19)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的 展開』 학연문화사 1999.

묘실을 의미한다.

- K. 옹관(甕棺) : 옹 또는 호를 1개 또는 그 이상을 조합해서 사용한 묘실을 의미한다.
- L. 단실(單室) : 상석 하에 묘실이 하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M. 복실(復室) : 상석하 또는 그것을 중심으로 주위에 묘실이 둘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 N. 합구식옹관(合口式甕棺) : 2개 이상의 옹 또는 호를 이용하여 만든 옹관을 의미한다.

② 형식

그리고 지석묘의 형태에 따른 명칭에 있어서도 종래 탁자식(卓子式)지석묘, 기반식(碁盤式)지석묘, 무지석식(無支石式)지석묘 또는 북방식(北方式)지석묘, 남방식(南方式)지석묘, 개석식(蓋石式)지석묘 등 그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석묘의 외관에 따라서 탁자식지석묘, 개석식지석묘, 기반식지석묘로 각각 명칭 함이 좋을 것 같아서 이를 취한다. 사실 종래와 같이 무지석식지석묘라든지 북방식지석묘, 남방식지석묘 또는 변형지석묘 등의 명칭은 외관 뿐만 아니라 구조면이나 지역적 분포를 기준 한다면 지 탁자식지석묘나 기반식지석묘를 전형적인 지석묘로 삼고 이를 기준한데서 나온 불규칙적인 명칭이 다양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외관에 의해 명칭된 탁자식지석묘와 기반식지석묘에 개석식지석묘를 더하여 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형식분류에 따라 지석묘를 편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석묘의 형식 분류와 그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검토되어 왔다. 즉 1916년 일본인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中國石柵之研究」²⁰⁾에서 우리나라 지석묘를 제I식과 제II식으로 나누고 제I식은 남부지방의 기반식지석묘, 제II식을 평안도 등 북부지방의 탁자식지석묘라 하고, 제I식 지석묘가 제II식 지석묘보다(즉 기반식지석묘가 탁자식지석묘 보다) 더 고식의 형태라고 하였다. 그 후 이에 대해서 가야모토 모리토(樞本杜人)의 「大邱 大鳳町支石墓群について」²¹⁾와 미카미 쓰구오(三上次男)의 『滿鮮墳墓の研究』²²⁾에서는 각각 북방식지석묘(탁자식지석묘)가 남방식지석묘(기반식지석묘)보다 고식이라 하면서 전기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설을 전면 부인하고 나왔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64년 임병태는 「한국 지석묘의 형식 및 연대문제」²³⁾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지석묘의 형식을 탁자식지석묘, 기반식지석묘, 무지석식지석묘로 각각 구분하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면서 탁자식지석묘가 최고식이며 그 다음이 기반식지석묘, 무

20) 鳥居龍藏 「中國石柵之研究」 『燕京學報』 31輯. 1946.

21) 樞本杜人 「大邱大鳳町支石墓について」 『고고학잡지』 38. 1948.

22) 三上次男 『滿鮮墳墓の研究』 1961.

23) 임병태 「한국지석묘의 형식 및 연대문제」 『史叢』 9. 1964.

지석식지석묘(개석식지석묘)순으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뒤 1967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출판한 「한국지석묘연구」²⁴⁾에서는 지석묘의 형식을 먼저 북방식지석묘와 남방식지석묘로 나누고 남방식지석묘를 다시 무지석식, 유지석식으로 구분하면서 이들 선후관계를 북방식 지석묘, 남방식 지석묘 중 무지석식 유지석식순으로 편년 - 그 중에서도 무지석식의 경우 묘실이 개석 유무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선행한다 하고 무개석의 경우에는 주변에 부석한 것 보다 하지 않는 것이 선행한다고 하였다.

1973년 일본의 코우모토 마사유키(甲元眞之) 「朝鮮支石墓の編年」²⁵⁾에서 우리나라 지석묘의 형식을 심촌리 A식, 심촌리 C식, 대봉동식, 곡안리식으로 나누고 이순서가 곧 우리나라 지석묘의 선후관계 편년순이라하며 북방식 지석묘(탁자식 지석묘)는 기반식지석묘와 더불어 개석식지석묘의 말기단계에서 남북으로 구분되어 그 분포지역과 형식을 달리하면서 같은 시기에 나타난 마지막 단계의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1974년 김원룡은 「한국의 고분」²⁶⁾에서 우리나라 지석묘를 북방식지석묘, 남방식 지석묘, 개석식지석묘로 각각 구분하고 그 중 북방식지석묘는 최고식에 속한다고 하면서 남방식 지석묘와 개석식지석묘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1978년 최몽룡은 전남지방의 지석묘를 발굴 조사하고 종합하면서 우리나라 지석묘를 북방식지석묘, 남방식지석묘, 개석식지석묘로 그 형식을 각각 분류하고 이들 선후관계 역시 이 순서에 따른다고 하였다.²⁷⁾ 이 외에도 다른 분류법을 발표한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석묘 형식 분류 및 그 편년방법에 있어서도 통일을 보지 못한 채 남아있으므로 어느 특별한 하나의 형식 분류를 택해서 설명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여기서 형식 분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시안을 제시한 것이 다음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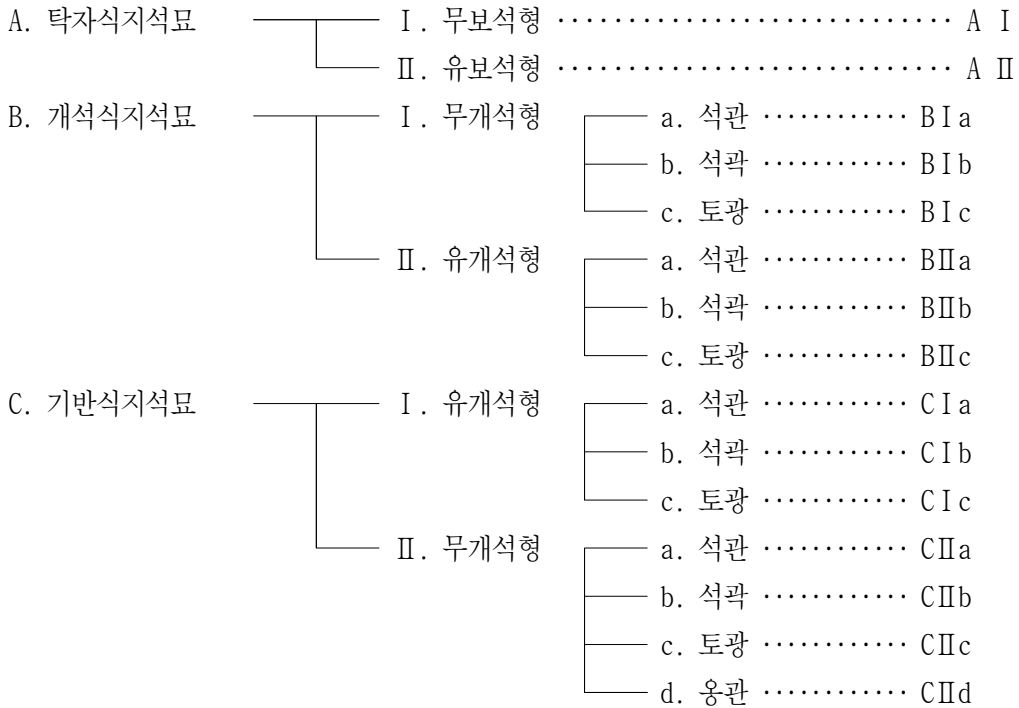
24)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國立中央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6冊. 1967.

25) 甲元眞之 「朝鮮支石墓の編年」 『朝鮮學報』 第66輯. 1973.

26) 金元龍 『韓國의 古墳』 교양국사총서2. 1974.

27) 崔夢龍 「全南地方所在 支石墓의 形式과 分類」 『歷史學報』 第28輯. 1978.

표(7). 지식묘의 형식분류



2) 고성지역 지식묘 분포와 특징

고성군 내에서 확인된 지식묘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이 고성읍 수남리를 비롯해서 동해면 양촌리, 마암면 석마리, 대가면 금산리, 하이면 석지리, 하일면 학림리, 오방리지석묘군 등 68개소나 된다.²⁸⁾ 이들 지식묘는 한결 같이 해안 평야나 계곡 평야 등 수변에 가까운 평지에 4기~5기가 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대부분 기반식이고 간혹 개석식도 혼재하고 있다. 지식묘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유적은 신용리 제3호 석관묘이다. 이미 주거지 부분에 유적의 위치와 조사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그 가운데 조사지는 석관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3호 석관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²⁹⁾ 즉 보고서에 3호 석관묘는 표고 35.7m지점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7m정도 이격해서 2호 석관묘가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장축으로 장방향 묘광을 굴착하고 그 속에 할석으로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고 있다. 석관묘의 개석은 장대석을 걸친 상태이다. 그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는데 위에서 무거운 중압을 받은

28)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29)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 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상태였다.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이고 할석을 이용한 벽석은 2-3단정도 남아있다. 석관 길이 170cm 폭 50cm 깊이 20cm정도이다. 유물은 내부 서장벽 남쪽에서 마제석검 1점과 석촉 2점이 출토되었다. 석검은 유병식으로 훼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며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 cm 폭 1.0 cm 두께 0.7cm이다. 이 유구가 지석묘라고 추정해 보는 것은 보고문 가운데 장대석으로 걸쳐진 개석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는데 무거운 중압에 의해 눌러진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석 위에 놓였던 대형 할석들은 지석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석의 중압으로 개석이 눌러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 묘실,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납한 마제석검과 석촉 등의 매장풍습은 석관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동일시기 남부지방 지석묘 특징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호 석관묘는 상석이 이동된 지석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리유적 주변의 용산리, 거산리, 가려리, 은월리, 월평리, 울대리 등 거류산 서쪽에 지석묘가 집중 분포한다는 점에서도 그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유구가 지석묘 묘실이 분명하다면 고성에서는 처음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유구는 고성지역에 분포하는 지석묘가 대부분 기반식이거나 개석식이라는 전기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성지역 지석묘의 축조시기도 여기에서 수습된 마제석기의 특징을 통해서 보증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주목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지석묘로서 정식 발굴조사된 것이 없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전기한 신용리유적의 묘실구조와 출토유물, 군내에 분포한 지석묘의 외형 등의 특징을 참고하면 고성지역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서 후기 즉 B.C.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왕성하게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하일면 학림리지석묘의 경우 상석을 보기 드문 대석을 이용하고 10여기가 해안평야에서 하천을 따라 산지계곡까지 줄지어 군집하여 청동기시대 사회상과 문화상을 엿 볼 수 있는 매우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최근 고성읍 울대리 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의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획된 부석층을 가진 지석묘의 하부구조도 고성지역 지석묘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관계자료의 축적이 기대된다.³⁰⁾

한편 고성지역의 지석묘 분포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군내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청

30) 경상문화재연구원의<고성울대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문화재표본조사학술자문위원회>자료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지석묘, 주거지 등 각종 유구가 부지내에서 확인되어 장차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2015.1

동기시대 중기에는 현재 군내 마을분포와 같은 주민 분포상태가 이루어졌을 것이 짐작된다. 특히 지식묘의 분포가 하천유역 평야지대나 해안선에 근접한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은 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생활이 본격화 되면서 농경지 확보를 위해 평야지대로 이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 주변에 주민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수로를 이용한 부분적인 어로활동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나 교류를 위해 하천과 바다는 교통로로서 역할도 다 했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지형을 가진 고성은 기후, 강수량은 물론 바다라는 훌륭한 교통로를 구비한 남해안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표(8). 고성지역 지식묘·입석·무문토기 산포지 지명표

연번	유적·유물명	지도번호	연번	유적·유물명	지도번호
1	固城 校社里 支石墓	통영003-22	41	固城 晨盆里 立石	진주079-11
2	固城 校社里 支石墓群	통영003-12	42	固城 晨盆里 遺物散布地 V	진주079-17
3	固城 校社里 先史時代墳墓	통영002-8	43	固城 禮城里 支石墓	함안061-1
4	固城 德仙里 支石墓	통영003-7	44	固城 淸光里 立石	함안053-7
5	固城 武良里 遺物散布地 I	통영002-3	45	固城 廣德里 支石墓群 I	함안074-1
6	固城 水南里 支石墓	통영013, 통영014	46	固城 廣德里 支石墓群 II	함안064-15
7	固城 月坪里 철성바위	통영014-21:24, 30, 15-11	47	固城 龍臥里 支石墓群	함안063-8
8	固城 米龍里 支石墓	통영021-1	48	固城 孝洛里 住居址	함안064-6
9	固城 長峙里 支石墓 I	사천020-1	49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	함안064-7
10	固城 長峙里 支石墓 II	사천020-3	50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I	함안064-9
11	固城 洙陽里 支石墓	사천019-2	51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II	함안064-10
12	梧芳里 支石墓	삼천포028-14	52	固城 孝洛里 支石墓 I	함안064-14
13	固城 梧芳里 支石墓群	삼천포028-7	53	固城 孝洛里 支石墓 II	함안064-13
14	鶴林里 支石墓	삼천포028-5	54	固城 鹿鳴里 住居址	함안075-5
15	固城 鶴林里 遺物散布地	삼천포028-9	55	固城 鳳東里 先史遺蹟 I	함안077-1
16	固城 德湖里 支石墓	사천025-1	56	固城 鳳東里 先史遺蹟 II	함안076-5
17	固城 沙谷里 支石墓群	사천026-12	57	固城 語新里 支石墓群	함안077-2
18	固城 石芝里 住居址	사천026-4	58	固城 寶田里 支石墓群	함안084-4
19	石芝里 支石墓	사천026-10	59	固城 石馬里 支石墓群	함안073-11
20	石芝里 支石墓 I	사천026-2	60	固城 新里 支石墓	함안073-7
21	石芝里 支石墓 II	사천026-3	61	固城 內山里 支石墓	함안089-4
22	石芝里 支石墓群	사천026-8	62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	함안088-2, 089-5
23	固城 月興里 支石墓群	사천036-3	63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I	함안088-6
24	固城 月興里 遺物散布地 II	사천036-2	64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II	함안088-7
25	固城 武仙里 住居址	사천009-4	65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V	함안088-8
26	固城 武仙里 支石墓群	사천009-5	66	固城 佳麗里 支石墓 I	통영005-2

27	固城 滌煩亭里 支石墓群	사천008-4	67	固城 佳麗里 支石墓 II	통영005-3
28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	함안094-2	68	固城 甘西里 支石墓	함안096-6
29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I	함안093-6	69	固城 巨山里 遺物散布地	함안095-9
30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II	함안093-3	70	固城 巨山里 支石墓 I	함안095-3
31	固城 琴山里 支石墓	함안093-2	71	固城 巨山里 支石墓 II	함안095-14
32	固城 岩田里 支石墓群	함안093-12	72	固城 巨山里 支石墓 III	함안095-10
33	固城 柳興里 支石墓 I	함안093-8	73	固城 巨山里 支石墓 IV	함안095-11
34	固城 柳興里 支石墓 II	함안093-11	74	固城 巨山里 石棺墓 I	함안095-13
35	固城 柳興里 支石墓 III	함안092-8	75	固城 巨山里 石棺墓 II	함안095-15
36	固城 柳興里 支石墓 IV	함안092-9	76	固城 松山里 철성바위	통영005-8-14
37	固城 柳興里 支石墓 V	함안092-10	77	固城 龍山里 支石墓群	통영015-4
38	固城 柳興里 支石墓群 I	함안093-10	78	固城 銀月里 支石墓	통영015-6
39	固城 柳興里 支石墓群 II	함안092-11	79	固城 銀月里 支石墓群 I	통영015-5
40	固城 晨盆里 支石墓	진주079-12	80	固城 銀月里 支石墓群 II	통영015-1, 통영016-3

다. 석관묘

청동기시대에는 전기한 지석묘 뿐만 아니라 함께 석관묘도 사용되었다. 석관묘란 매장주체인 피장자의 매납을 위해 오늘날 장례행위에서 사용되는 목관을 대신해서 관석을 조립하거나 할석을 쌓아 관으로 이용하는 묘제이다. 석관묘는 재료는 다르지만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한 지석묘의 경우 묘 표지석인 상석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그 판별이 가능하지만 석관묘는 봉분없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으므로 식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발견 예가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과 도로공사 등 국토에 대한 형질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면서 구제발굴과 같은 학술조사에 의해 새로운 자료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성지역에서는 1970년대에 하일면 송천리 슬럼에서 석관묘가 처음 발굴조사되어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송천리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유구가 아니고 삼한시대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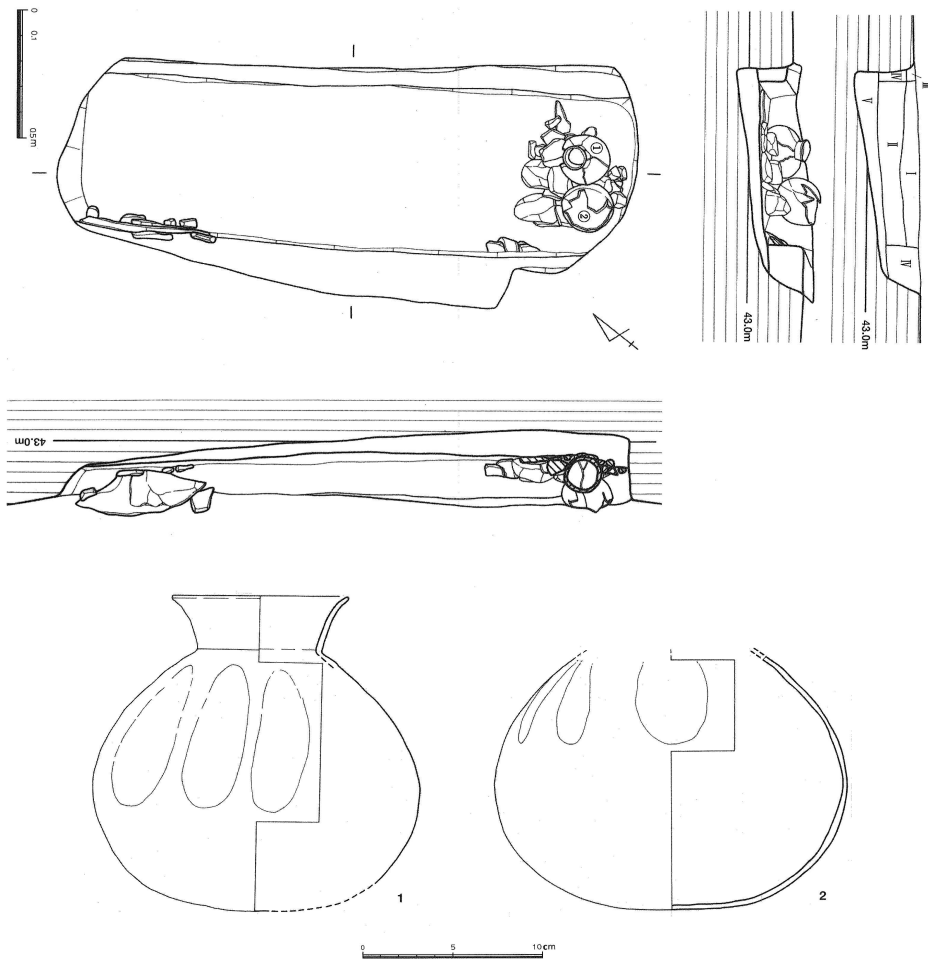
한편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석관묘는 최근에 들어와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즉 마암면 두호리유적을 비롯해서 고성읍교사리유적, 거류면신용리유적, 회화면봉동리유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암 두호리(頭湖里)유적³¹⁾

두호리유적은 마암면 두호리 2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31) 慶南考古學研究所 『固城頭湖里遺蹟』 2000.

건설구간 부지내에서 확인되어 1998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두호리유적은 당항만 서쪽 사월산의 남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였는데 그 완사면에서 3기의 석관묘가 발견되었다. 그 중 1호 석관묘는 표고 42m의 구릉정상부에 위치했다. 석관은 자연암반을 남동-북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묘광을 먼저 설치하고 다시 그 속에 장방형 석관을 조립하였으나 뒷날 석관으로 이용된 판석 대부분이 유실되고 단벽 일부만 겨우 남아 있었다. 묘광 길이 220cm 폭 72cm 깊이 15cm정도 크기였다. 주목되는 것은 남쪽 단벽 외측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채문토기 2점을 부장한 점이다. 2점 모두 파손된 것을 보면 복원하였더니 저부가 둥근 단경호 형태로서 외반하는 구연부에 둥근 동부를 가진 것으로 최대경은 약간 하위에 있었다.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태토에 기벽이 얇고 전체 기면이 흑갈색을 띠는데 U자형 채문은 더욱 진한 흑색으로 전부에만 배치하고 있다. 그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점은 높이 19.3cm 구경 9.8cm 저부 직경 7.0cm 동부 최대경 18.3cm 크기이다. 2호는 표고 40m의 전기한 1호묘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자연암반층을 남-북 장축으로 굴착해서 먼저 장방형 묘광을 만들고 그 속에 다시 점판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바닥과 양장·단벽을 상자형으로 조립한 형태였다. 유물 부장 공간인 남쪽 단벽 바깥은 계단상으로 굴절되어 있었고 개석은 없었다. 유물은 부장 공간에서 채문토기로 보이는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나 특징 파악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추정컨대 전기한 1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토기와 동일한 채문토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석관 내부 북쪽 단벽 가까운 서쪽장벽 아래에서 천하석제(天河石製) 식옥(飾玉) 1점이 수습되었다. 석관 내부 크기 길이 88cm 폭 21cm 깊이 13cm정도의 소형이었고 수습된 식옥은 직경 1.2cm 두께 0.6cm 크기이다. 3호는 2호묘 아래 표고 39m에서 확인되었다. 자연암반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장타원형 묘광을 먼저 설치하고 그 속에 판석을 이용해서 상자형 석관을 다시 조립한 형태였다. 당시 사용된 판석은 일정 규격을 가진 것이 아닌 다양한 크기이며 석관 형태도 상자와 같이 장방형의 정형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서쪽단벽부분에 부장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 예상되지만 형태 파악이 어려웠고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석관 내부 크기 길이 77cm 폭 33cm 깊이 20cm정도의 소형으로 부류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석관묘 구조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을 감안하면 전기한 주거지보다 훨씬 이른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서 중기 전반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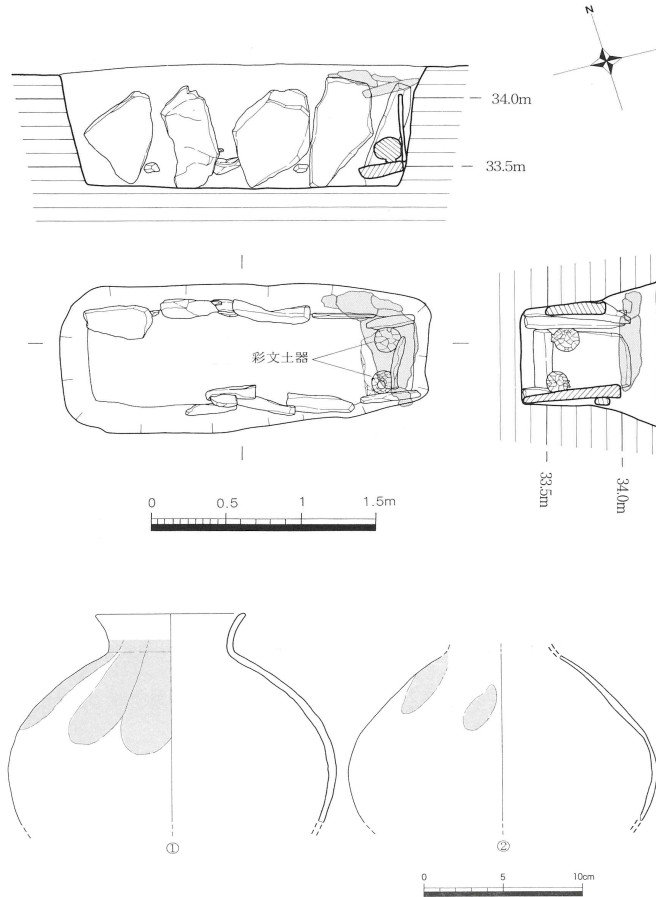
그림(7). 두호리 1호묘 및 출토유물

2) 고성읍 교사리(校社里)유적³²⁾

교사리유적은 고성읍 교사리 산 31-6번지 일대에 위치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고성-자은(自隱)간 국도확포장공사구역 부지내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과정에서 석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1호 석관묘는 풍화암반층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장방형 묘광을 구축하고 그 속에 판석을 이용하여 상자형 석관을 조립한 형태인데 바닥은 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개석과 남쪽장벽 일부가 유실되어 전체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잔존부위에 의하면 개석을 덮은 상자형 석관묘는 분명해 보였다.

32)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校社里遺蹟』 學術調查研究叢書 第21輯, 2003.

석관 길이 214cm 폭 55cm 깊이 80cm의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것이다. 유물은 동쪽 단벽 아래에 판석을 별도로 깔고 그 위에 채문토기 2점을 부장하였다. 파손이 심해서 원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만 전기한 두호리 석관묘에서 수습된 채문토기와 그 특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잔존높이 11.5cm 두께 0.4cm정도이다.



그림(8). 교사리 제1호 석관묘 및 출토유물

2호 석관묘는 표고 36m의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전기한 1호와 같이 풍화암반층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하여 장방형 묘광을 구축하고 그 속에 점판암제 판석을 세워 상자형 석관을 조립하였으나 동쪽·서쪽단벽과 북쪽장벽 일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2호 석관의 경우 판석 4매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시상대(屍床臺)로 사용한 것이 1호 석관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석관의 크기는 길이 230cm 폭 50cm깊이

75cm의 비교적 대형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이 유적의 경우 석관의 규모가 보다 대형이라는 점이 두호리와의 차이점이지만 나머지 입지, 구조, 출토유물, 축조시기 등은 역시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측된다.

3) 거류 신용리(新龍里)유적³³⁾

신용리유적은 전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거류면 신용리 147번지 일대를 (주)성광에서 계획한 마동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중 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함께 주변에서 석관묘 4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1호 석관묘가 위치한 곳은 표고 40m지점으로 서쪽으로 9m정도 이격해서 1호 주거지가 있다. 조사당시 석관의 절반정도가 유실된 상태였는데 유구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직교하게 동-서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판석을 이용하여 상자형 석관을 조립한 것이었다. 유구 서쪽부분 유실로 개석이나 장·단벽의 축조방법을 알 수 없지만 잔존부위에 의하면 바닥에는 판석편을 전면에 깔고 장·단벽은 판석을 세워서 조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석관의 잔존길이 156cm 폭 47cm 깊이 8cm정도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2호 석관묘는 표고 35.5m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동남쪽으로 7m정도 떨어져 3호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 대부분이 유실되고 겨우 기단석과 바닥면 일부만 확인될 정도였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심한 훼손으로 개석이나 장·단벽의 축조 방법 등의 특징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는데 바닥의 경우 풍화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한 느낌이 들었다. 석관의 길이 165cm 폭 54cm 깊이 40cm정도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3호 석관묘는 표고 35.7m지점에서 확인 되었으며 북서쪽으로 7m정도 이격해서 2호 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석관의 개석은 장대석을 걸친 상태인데 그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고 위에서 무거운 중압을 받은 상태였다.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이고 할석을 이용한 벽석은 2단~3단정도 남아 있었다. 조사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유구의 잔존 상태로 미루어보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석묘의 상석이 이동되고 그 하부 구조만 남은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주목된다. 석관 길이 170cm 폭 50cm 깊이 20cm정도이다. 유물은 내부 서

33)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 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쪽장벽 남쪽에서 마제석검 1점과 석촉 2점이 수습되었다. 그중 석검은 유병식으로 훼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고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복원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 cm 폭 1.0 cm 두께 0.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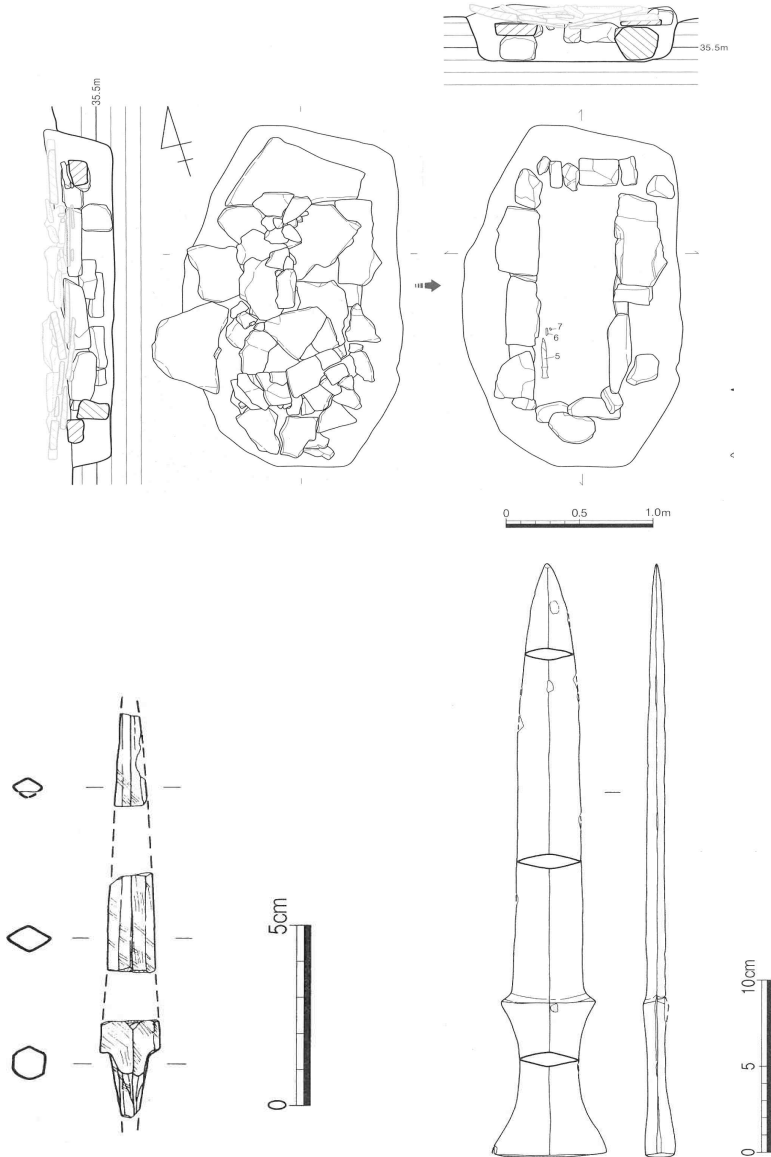


그림 22 그림(9). 신용리 3호 석관묘와 출토유물

4호 석관묘는 표고 36.2m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으로 19m정도 이격해서 3호 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서-북동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석관의 개석으로 사용된 장대석이 석관 내부에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교란을 입은 듯 했다. 개석은 장대석을 겹쳤던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하였다. 벽석은 2단~3단정도 할석을 쌓은 형태이다. 석관 길이 160cm 폭 45cm 깊이 42cm정도 크기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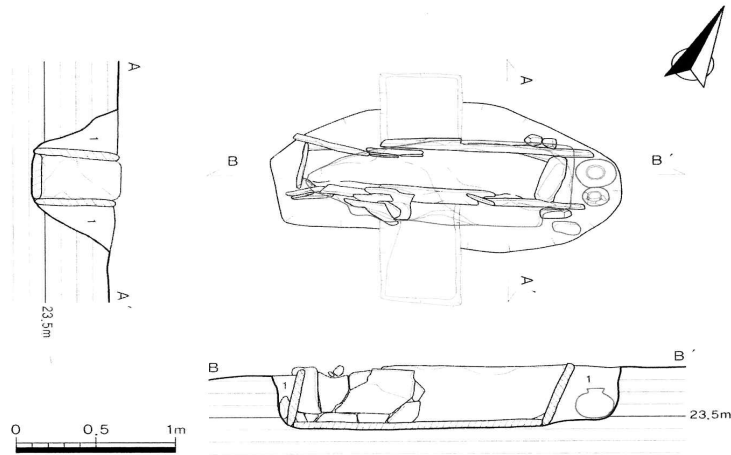
신용리유적 석관묘 4기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어느 정도 형태과악이 가능하여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1호는 판석으로 조립한 석관 형태이지만 나머지 3기는 모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태의 것이다. 유구간의 연대적 차이는 자세하지 않지만 3호 석관의 경우 지석묘의 상석이 이동된 지석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곽형 묘실이 많고 3호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참조하면 그 축조 시기는 역시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서 후기 전반대로 편년 가능하여 전기한 주거지유적과 동일한 시기의 분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화 봉동리(鳳東里)유적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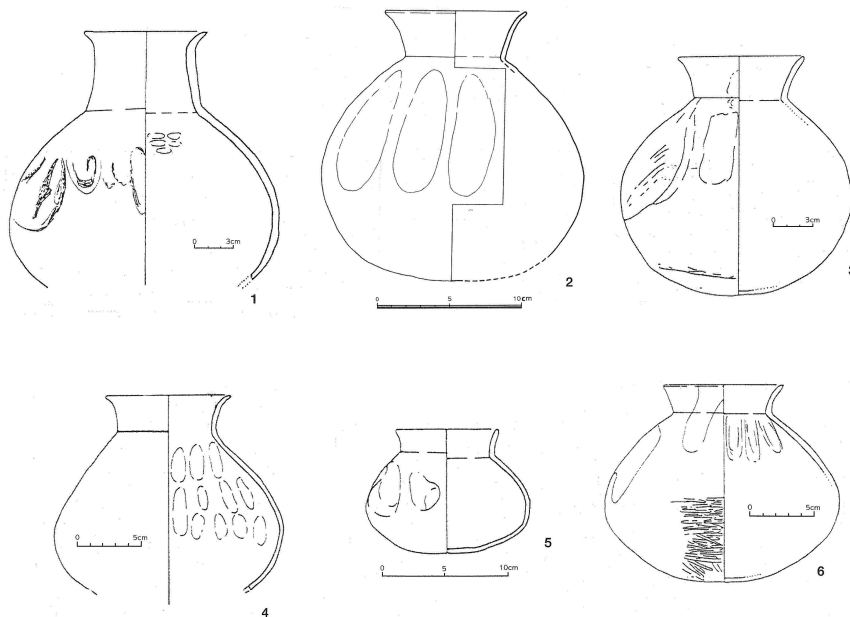
회화면 봉동리 114-1번지일대의 야산을 고성 노벨컨트리클럽에서 부지확장공사를 실시하던 중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남쪽으로 당항만을 조망할 수 있는 한밭안산(해발 125.9m) 남단의 설상구릉지(해발 25m)이다. 조사지역 평면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세장형에 가깝고 길이 150m 폭 20m 규모이다. 지질은 표토 바로 아래에 풍화암반토가 나타날 정도로 표토층이 얇았다. 조사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토광묘, 회곽묘, 방형묘, 석곽묘 등 모두 11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그중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길이 210cm 폭 116cm 깊이 56cm 크기로 굴착해서 장방형 수혈을 먼저 구축하고 그 속에 다시 점판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양 장벽과 단벽 그리고 바닥을 상자형으로 조립하였다. 이때 양 장벽과 바닥은 2매 판석을 연결시킨 상태이고 양 단벽은 1매 판석을 이용하였다. 또 개석도 길이 190cm 폭 70cm 크기의 1매 판석을 이용하였다. 석관 길이 184cm 폭 56cm 깊이 56cm 크기이다. 유물은 북쪽 단벽 충진토 속에서 적갈색 단도마연 호형토기와 회갈색 호형채문토기가 파손된 채 수습되었다. 조사자는 청동기시대 중기후반으로 편년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봉동리유적

34) 부경문화연구원, 『고성 노벨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정밀)조사』, 2014.

근처에서도 과거 유병식 마제석검이 수습되어 신고 된 바 있다.



그림(10). 봉동리 석관묘 실측도



그림(11). 남부지방 출토 채문토기 실측도

(1: 전사포리 출토 2: 고성 두호리 석관묘 출토 3: 경주박물관 소장 A
4: 진주 대평 옥방 1호 주거지 출토 5: 호림박물관 소장 B 6: 진주박물관 소장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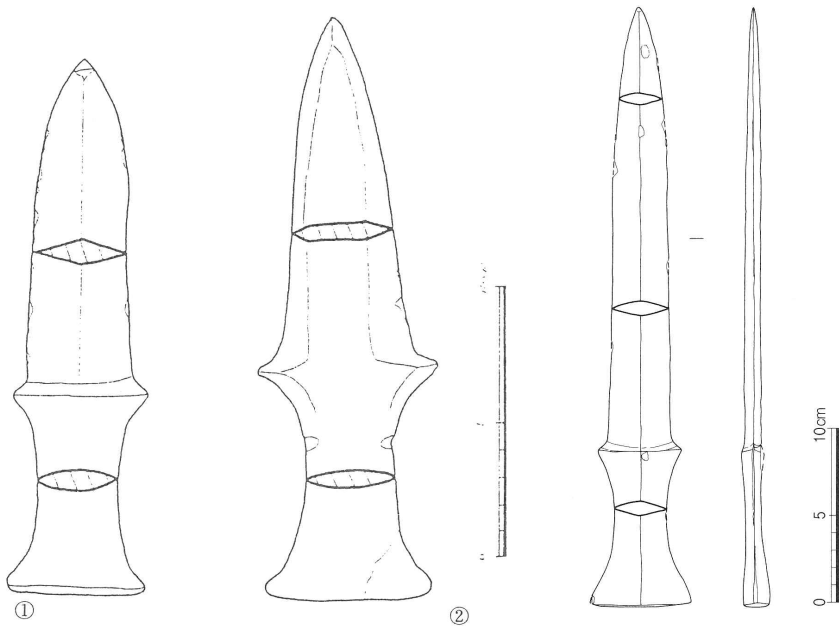
라. 마제석검

1) 출토유적과 유물의 특징

고성군 내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모두 3점이다. 그중 1점은 1971년 4월 지석묘가 집중 분포하는 대가면 금산리(琴山里)에서 출토되어 신고 된 것이고 1점은 1972년 1월 회화면 봉동리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되어 신고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점은 최근 발굴조사에서 석축과 함께 거류면 신용리유적 석관묘에서 수습된 것이다. 먼저 금산리유적은 전기한 바와 같이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서 여기서 출토된 석검은 지석묘와 관련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신고로 알려진 유물이므로 출토경위는 알 수 없다. 지석묘를 비롯한 청동기 시대 유적이 주변에 밀집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물이 출토된 유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석검은 점관석제로 무절무절(無段無節)의 유병식이다. 소형으로 검신(劍身)이 짧고 그 단면은 능형(菱形)을 이루며 봉부(鋒部)와 인부(刃部)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나 날카롭다. 심부(鐔部)는 두출(斗出)이 적고 짧은 평부 단면은 렌즈형이며 병두(柄頭)도 심부 폭과 동일한 직선상의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IIIb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금산리지석묘가 개석식과 기반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과 시기적으로 잘 어울린다 할 수 있다. 전체 길이 19cm, 검신 길이 11.4cm, 자루 길이 7.4cm, 검신 폭 3.2cm이다. 다음 회화면 봉동리출토 마제석검도 신고 된 유물이어서 출토경위와 유구가 자세하지 않다. 고성군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과정에서 회화면 봉동리 506~539번지 일대와 1212~1221번지 일대 2곳에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어 주위에 석검과 관련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³⁵⁾ 석검은 점관암제로 표면에 석질류문(石質流文)이 있는 유단의 유병식이다. 검신은 짧고 얇으며 그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봉부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인부는 재생한 것인지 양인의 폭이 넓고 역시 날카로우나 한쪽에 파손된 흔적이 있다. 심부는 두출이 확연하지만 두출부분을 제외하면 병부와 의 구분 없이 그저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병부의 유단(有段)은 양 가장자리에 홈을 파놓은 정도로 생략된 상태이며 단면은 렌즈형이고 병두는 심부보다 미발전된 것이다. 소형이지만 표면의 마연상태로 미루어보아 장기간 사용하면서 재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심부를 제외하면 형태상으로 고식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그 마지막 사용시기는 IIIb단계로 편년함이 옳을 듯싶다. 전체 길이 21.4cm 검신 길이 12.4cm 자루 길이 8.5cm 검신 폭 5.0cm 자루 폭 3.4cm이다. 마지막 전기한 신용리 3호 석관묘에서 수습된 석검은 점관암제로 표면 산화가 심하며 인부도 산화로 마멸이 심한 느낌이 든다. 검신부가 절단된 것을 복원한 것이며 무단무절의 유병식으로 병부

35)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에 비해 검신이 길고 타원형에 가까운 둥근 봉부에서 병부 끝까지 능선이 뚜렷하다. 검신, 병부 모두 단면은 능형이며 심부는 돌출이 미약한 시작단계이다. 석질 타인지 표면 산화가 막심하여 장시간 사용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김해부원동³⁶⁾출토 석검과 매우 유사하며 Ⅲb단계로 편년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함께 수습된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인데 유엽형의 유경촉으로 축신이 길고 그 단면은 능형이다. 경부는 끝이 뾰족하고 단면 육각형의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복원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 cm 폭 1.0 cm 두께 0.7cm이다.



그림(12). 고성군내 출토 마제석검(①금산리 ②봉동리 ③신용리)

2) 고성출토 석검의 편년적 위치

이상과 같이 고성군 내에서는 Ⅲ단계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석검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제석검은 크게 I~V단계로 그 시기구분이 가능하고 각 단계는 다시 A, B로 세분할 수도 있다. 그 중 제 I 단계는 유병식석검과 유경식석검의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신부가 짧고 양 인부는 둥근 맛이 있으며 중앙에는 피홈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경식 석검은 경부가 비교적 긴 것과 짧은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추측컨

36) 동아대학교박물관 『金海府院洞遺蹟』 1981.

대 경우에는 유병식석검의 병부형태와 동일한 나무자루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제I단계 석검 가운데 유경식과 유병식 중 가장 고식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팽이형 토기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병식(有柄式)석검은 유경식(有莖式)석검을 조형(祖型)으로 삼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주목된다. 그러나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제I단계 석검의 사용 시기는 과주 옥석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³⁷⁾ 연대를 참고하면 B.C. 9~8세기경으로 추정 가능하게 한다.

다음 제II단계 역시 유경식석검과 유병식석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 특징은 전기한 제I단계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병부의 유단 폭이 좁아지면서 피홈이 없어진 것이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제II단계 역시 유경식석검과 유병식석검 두 종류가 있으며 그 특징은 전기한 제I단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병부의 유단 폭이 좁아지면서 피홈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II단계의 사용 시기는 경기도 여주 혼암리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³⁸⁾을 참고하여 B.C. 7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제III단계는 유병식석검의 병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전단계의 두 종류 이외에도 유절식이나 무단무절식의 것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그 중 유경식석검은 길어진 경부 끝 양측에 홈을 새겨 착병시(着柄時) 편리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또 유병식은 검신과 병부가 모두 길어지나 이에 비례해서 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띤다. 이 단계에 유절식과 무단무절식이 나타나는데 유절식의 경우 중국의 도씨검³⁹⁾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제III단계의 사용 시기는 제천 황석리 지석묘 연대와 춘추 중말 도씨동검 연대도 참고하면 B.C. 6세기경으로 편년 가능할 것이 예상되며 고성 금산리를 비롯한 봉동리, 신용리출토 석검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의 제IV단계는 그 특징이 다양한 시기이며 유경식석검은 경부가 짧아지면서 검신은 더욱 길어진다. 또 유병식석검은 심부와 병부의 돌기가 심해지고 봉선은 이등변삼각형을 뿔 정도로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검신은 세장해지며 양인부는 일직선상을 띤다. 동반된 석촉은 유엽유경의 장대형 석촉이며 전남 운대리,⁴⁰⁾ 충남 송국리⁴¹⁾, 경남 진동리에서는 고조선식동검도 함께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으나 진동리출토품⁴²⁾ 이외에는 일단 전세품으로 간주하고 B.C. 5세기로 추정하였다. 제IV단계의 것이 일본 야요이문화 초기에 출현⁴³⁾한다는

37)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國立中央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6冊. 1967.

38) 任孝宰 『欣巖里住居址4』 서울대학교박물관. 1978.

39) 全榮來 「完州上林里出土 中國式銅劍에 관하여」 『전북유적조사보고6』 1976.

40)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 叢書 第2輯. 1959.

41)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Ⅲ』 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19冊.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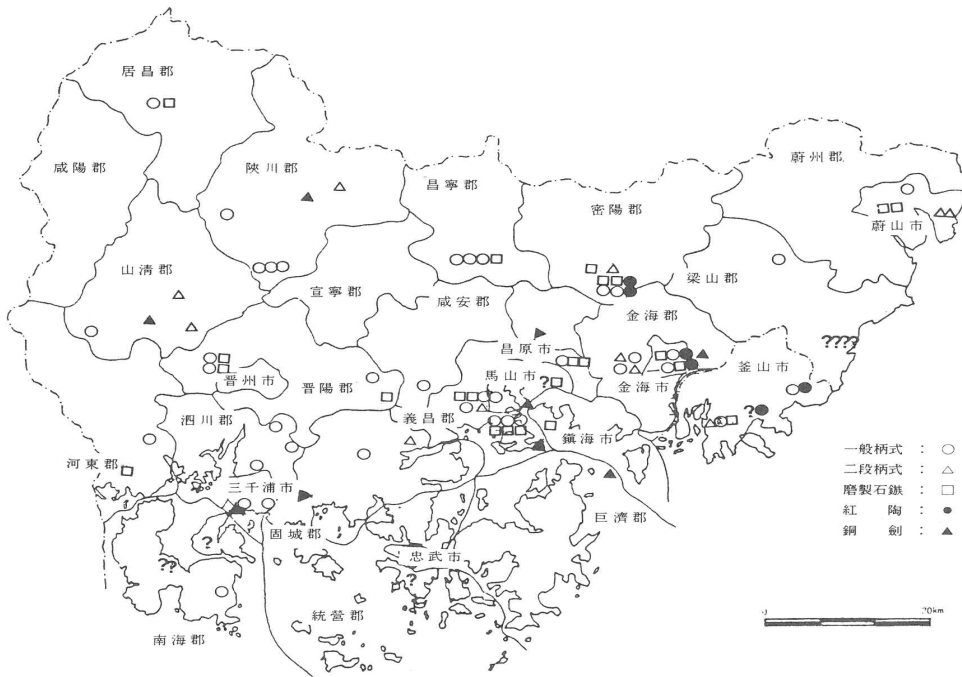
42) 沈奉謹 「慶南地方出土青銅遺物の 新例」 『釜山史學』 4輯 1980.

43)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 학연문화사 1999.

사실도 참고가 될 것이다.

제V단계는 유경식과 무단무절의 유병식석검 2종류가 있다. 그 중 유경식석검 경부가 짧아지고 검신은 장타원형을 띄는 단면 렌즈형이 된다. 유병식석검은 검신이 짧아지고 병부는 과장되어 마치 의기처럼 퇴화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기 철기의 유입으로 전형적인 마제석검은 그 제작 또는 사용이 마감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V단계의 사용 시기는 김해 무계리⁴⁴⁾와 부산 괴정동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와 청동촉, 석촉 등을⁴⁵⁾ 참고로 하여 B.C. 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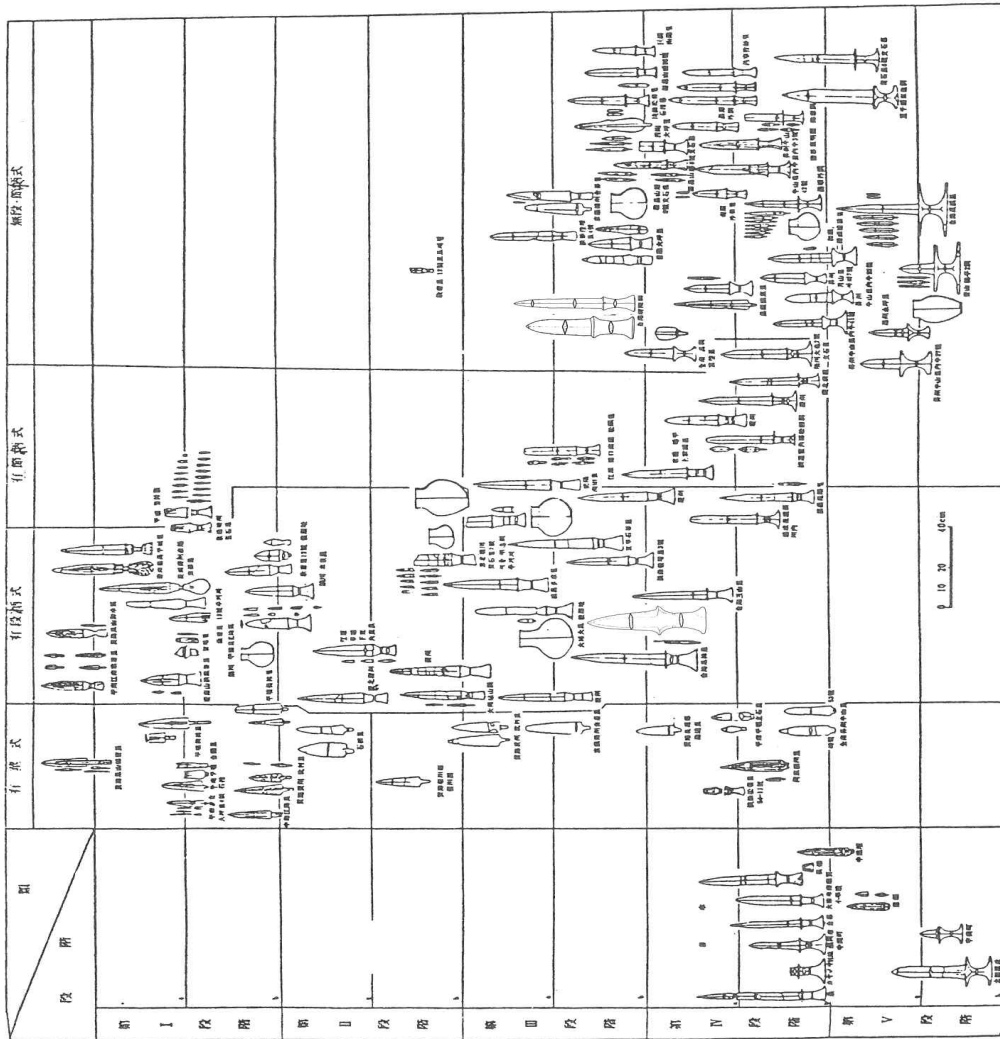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된 마제석검 분류와 편년을 참고한다면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B.C.6세기 전후로 편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석검을 사용한 시기가 고성지역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왕성한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된 주거지를 비롯한 지식묘의 특징과도 시기적으로 상호 부합되는 내용이어서 고성군의 청동기문화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13). 경남지방 출토 마제석검 분포도

44) 金元龍 「金海茂溪里 支石墓와 그 副葬品-靑銅器를 伴出하는 新例」 『東亞文化』 4輯 東亞文化研究所, 1963.

45)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그림(14). 우리나라 마제석검 편년도

마. 고찰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편년은 주로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등 4분법이 나 전기, 중기, 후기의 3분법을 이용하고 있다. 조기는 돌대문토기(미사리형토기), 전기는 이중구연에 단사선문, 구순각목, 공렬문토기(가락식, 혼암리식, 역삼동식), 중기는 무문, 공렬토기(송국리식토기) 후기는 점토대구연토기로 구분하는 것이 4분법이다. 필자는 3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단계로서는 편리하다 생각하고 전, 중, 후기로 구분하고 대신 점토대구연토기는 철기시대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송국리식토기는 후기로

편년하고 그 하한을 기원전 4세기 전반대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고성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마제석검 등의 유구와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상리면 무선리와 거류면 신용리,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발굴조사 되었다. 그러나 울대리유적의 경우 보고서 미간행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다만 조사자료에 의하면 송국리형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무선리와 신용리 양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공통점은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이며 내부에 주혈과 타원형 수혈을 갖는 소위 송국리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와 마제석기이다. 상리면 무선리 1호 출토 옹형 무문토기의 경우 구연이나 구순분에 공열이나 새김문이 없는 조질의 무문토기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그 특징이 후기로 편년되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임은 시사하고 있다. 삼한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 사용시기에 해당하는 고성송학리유적이나 성내리유적 수혈내부에서 수습된 무문토기편 가운데 상호 연계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2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삼각형석도는 반월형석도가 변형된 것으로서 비교적 늦은 신식으로 편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리 무선리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후반으로도 편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 초도리유적에서는 장방형 수혈 주거지 내부에서 원형점토대구연토기와 함께 유구석부가 출토되어 삼각형석도나 유구석부, 삼각형 무경축 등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마제석기들이 원형점토대토기, 한국식동검 등과 함께 출토되어 과도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송국리형 주거지 가운데 일부는 삼한시대 태동기에 해당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예상된다.

다음은 지석묘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성지역에는 전역에 걸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내륙산간지대의 협곡, 해안평야와 구릉 등 5-7기가 군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포지형을 감안하면 청동기시대 해수면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후에도 현재와 대차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고성평야가 벼농사를 중심하는 곡창지대인 것을 감안하면 청동기시대도 마찬가지로 재지주민들은 농경이 중심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상석을 이용한 지석묘의 축조는 사회적으로 계층관계가 지역에 따라 성립되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꼭 계층관계를 따진다면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 목관묘, 토광묘 등의 피장자와 아예 분묘가 없는 피장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고성읍 울대리에 위치하는 지석묘의 경우 인접해서 당시의 환호유구를 비롯한 수혈식 주거지, 석관묘, 지석묘유구 등 삼한시대 소국 읍락의 국읍이나 별읍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청동기시대 환호는 경남지역 창원, 남해, 진주 등지에서 송국리문화 단계에서 나타나며, 울산 명산리, 송정리에서도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에서 나타나고 울산 교동리와 달천유적에서는 원점토대토기단계의 것이 발견되어 상호연계성이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그리고 거류면 신용리유적이나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확인된 유구의 구조는 기반석과 개석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 시기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신용리유적과 울대리유적에서 출토된 마제석검과 석촉의 특징을 비롯해서 일본 야요이시대 九州 지방 지식묘와도 형태나 규모, 사용시기 등이 상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리나 울대리지석묘가 송국리형 주거지 주변에서 조사된 것도 축조시기에 참고 되는 부분이다.

다음 석관묘이다. 마암면 두호리, 회화면 봉동리, 거류면 신용리, 고성읍 울대리, 교사리유적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신용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석으로 조립한 상자형으로 동쪽 단벽 근처에 별도의 유구를 설치하고 그 속에 채문의 호형토기를 부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채문의 호형토기는 고성지역 외에 사천, 밀양, 진해지역에서도 일부 발견되었으나 이곳처럼 집중하는 것은 드문 예이다. 그리고 남강유역 지식묘 하부묘실에서 홍도가 빈번하게 출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묘제 차이를 비롯해서 지역성, 시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채문의 호형토기와 판석조립의 상형석관묘의 조합이 고성지역 석관묘의 특징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최근 조사된 진해마천동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목관묘에서 채문토기와 함께 석기,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말에서 중기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용리를 제외한 채문토기가 출토된 두호리와 교사리, 봉동리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 가능하여 고성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평가되어 매우 주목된다.

마지막 마제석검과 석촉이다. 거류면 신용리, 고성읍 울대리에서는 지식묘 하부 묘실에서 출토되고 대가면 금산리, 회화면 봉동리의 것은 신고유물이다. 석검은 유병식이며, III단계로 편년 가능한 점관암제이다. 봉동리 신고품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얇은 흙이 있고 칼몸이 장기간 사용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신용리와 울대리에서 출토된 것은 지식묘 하부묘실에서 출토되어 상호년대 추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함께 출토된 유경식 석촉도 단면 능형 것으로 축신도 비교적 짧은 것이어서 동반 출토된 석검과 대차가 없는 특징의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시기도 필자편년표의 IIIb단계정도로 기원전 6세기 이상을 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고성지역의 주거지, 지식묘, 석관묘, 마제석검, 마제석촉, 무문토기, 삼각형 석도 등 청동기시대유구와 유물의 특징을 종합한다면 시기적으로 B.C. 8세기에서 B.C. 4세기 사이가 중심이 된 문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왕성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고성읍을 비롯해서 각 면(面)또는 리(里)단위 지역까지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3절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는 삼국지(三國志)와 같은 중국 문헌에서 이미 삼한시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문헌상의 삼한시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초기철기시대라 명칭하고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와 출토유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초기철기시대나 삼한의 시작은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B.C. 300년을 전후하여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령반도에서 평양으로 옮겨지고 그 무렵 남쪽에는 철기 유입과 함께 삼한의 모체였던 한국이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삼한시대는 지식묘 사회가 끝나고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마제석기도 돌연 소멸하게 된다. 대신해서 철기를 중심한 금속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고조선식동검은 한국식동검으로 전환하고 후기까지 사용된 공열, 구순새김문 등의 무문토기는 구연부에 점토대로 보강하는 말기 무문토기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의 분포는 전국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하이면 석지리출토 한국식동검⁴⁶⁾을 비롯해서 하이면 송천리 석관묘⁴⁷⁾, 고성읍 동외리 패총⁴⁸⁾, 고성읍 송학리309-1번지유적⁴⁹⁾, 고성읍성내리유적⁵⁰⁾ 등이 조사되어 이를 통해서 당시의 문화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게 되었다. 우선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6) 沈奉謹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 青銅遺物新例」 『古文化』 第20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2.

47) 金東鎬 『固城松川里舍址 石棺墓』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3冊. 1977.

48) 金東鎬 『固城東外東貝塚』 東亞大學校博物館 1984. 국립중앙박물관 『固城貝塚 發掘調查報告書』 국립박물관 고고조사보고 제24책. 1992.

49) 한겨레문화재단연구원 『固城 松鶴里 309-1番地 遺蹟』 학술조사보고서 제16책. 2012.

50) 東亞大學校博物館 『固城邑城址』 古蹟調查報告書 第40冊. 2006.

		銅劍과 同伴遺物 內谷	出土地名
古朝鮮式 銅劍期	第Ⅰ期		1, 7, 12, 新金縣雙房石棺墓 2. 永吉縣星里石棺墓 3. 遼陽三道河子 4. 清原縣門險石棺墓 5, 6, 11. 魏州美松里 8, 9. 寧興邑 10. 推順大村房 13. 龍川新岩里下層 14. 永吉縣 남기산단상무덤
	第Ⅱ期		1, 6, 9, 15, 16. 旅大市溝上 2, 10, 12, 13. 十二疊營子 3. 清道鎮田里 4, 5. 扶餘松菊里 7, 8. 龍川新岩里上層 11. 寧城縣南山根 14. 溥平壤 17. 雙砬子3期 18. 寧邊細竹里2層
	第Ⅲ期		1, 12, 13, 14, 16. 鄭家砬子 1地點 2, 3, 4, 10, 11, 15, 18, 19 旅大市樓上 5, 9, 牛山里 6, 7, 8. 鐵東里 17. 丹東市趙家堡 20. 鄭家砬子 2號墓 21. 寧邊細竹里 2層
韓國式 銅劍期	第Ⅰ期		1, 6, 10, 11, 14, 16, 20, 22 大田地平洞 2, 12, 15, 17, 19. 牙山南 城里 3, 9, 13. 禮山東西里 4, 5, 18. 治羅州이즈역스 토르 7, 8. 泉谷里 21. 陽州木石里
	第Ⅱ期		1, 2, 5, 7, 9, 10, 15, 18. 扶餘九鳳里 3, 4, 6, 8, 12, 13. 咸平草浦里 11, 14, 17, 和順大谷里 16. 平壤打鐵里 19. 白翎島 20. 清原飛下里 21. 江西台城10號
	第Ⅲ期		1, 4, 9, 10, 12, 15, 16, 17, 18, 22. 夫組嶺君墓 2, 14, 23. 夫組長印塚 3, 6, 8, 13. 慶州人堂里 5. 慶州安溪里 7. 平壤貞佑洞 11. 大同郡上里 19. 靈山平靈里 20, 21. 慶州朝陽洞
	第Ⅳ期		1, 11, 12, 13, 14, 17. 大邱坪里 2, 3, 10. 大邱晚村洞 4. 溥大邱坪里 7, 8, 16, 18, 22. 金海良洞 5, 6, 9, 15, 19, 20, 21. 水川漁隱洞 23. 昌原茶戶里

그림(15). 우리나라 청동검과 그 동반유물 계보도

가. 하이면 석지리(石芝里)출토 한국식동검

이 동검은 하이면 석지리 양촌부락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흙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하이면 석지리 주변에는 청동기시대 묘제 중의 하나인 기반식지석묘가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석지라는 지명도 지석묘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검은 발견자가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표면을 반질반질할 정도로 마연시켜, 신고 당시에는 청록색 녹 쓴 부분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였다. 동검은 백동질로 인부가 부분적으로 마멸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편이었으며 전후면 호선(鑄線)은 기부(基部)에 까지 이르고 결입부(挾入部)에는 상하 절대(節帶)가 확실하게 남아있다. 결입부는 오목한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인부는 날카롭다 할 정도로 예리하다. 봉부(鋒部)는 약간 길고 선단에 홈이 있으며 관부(關部)는 경부(莖部)에 수직한다. 한편 경부에 상하 거푸집의 이음 자국이 남아있었으나 제작 후 마연해서 제거시킨 듯하다. 이 동검 형식은 한국식동검 중 제Ⅲ기로 편년될 수 있는 것으로 대략 B.C. 1세기경에 제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⁵¹⁾ 길이 31.3cm, 폭 3.3cm이다.

나. 하일면 송천리(松川里)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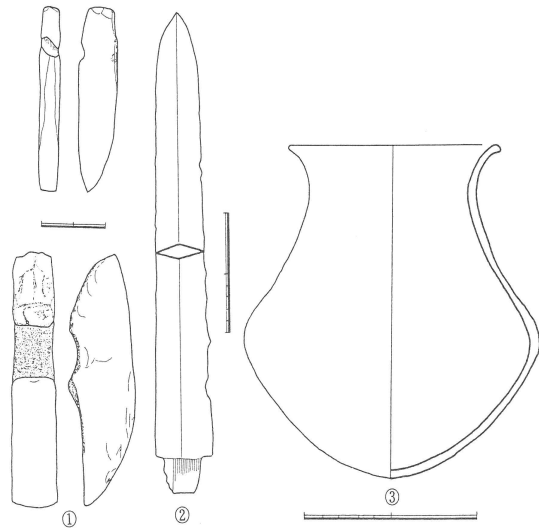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솔섬에 있는 초기철기시대 석관묘이다. 1974년 12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석관묘는 이 섬의 기반층으로 되어있는 점관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조립한 상자형인데 섬의 정상부(높이 27.4m)에서 동남쪽 사면의 5부 능선까지 그 사이에 수십기가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뒷날 풍우로 대부분의 석관 개석이 지상에 노출되거나 벽석이 훼손되는 등 유실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조사는 그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0기에 한정해서 실시하였다. 10기 모두 판석 여러 매를 이용해서 바닥과 장벽, 단벽, 개석을 조립한 상자식 형태였다. 유실된 타인지 개중에는 바닥 또는 개석을 갖지 않은 것도 있었다. 장축은 주로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이 대부분이며 간혹 북동에서 남서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 지형의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 방향이 기본이었다. 그중 제9호 석관묘의 경우 내부에서 토기와 함께 철검(鐵劍)이 출토되었는데 철검 손잡이 위치를 참고하면 피장자의 머리 방향은 북쪽으로 추정되었다.

크기는 길이 1.28cm~1.95cm, 폭 0.3cm~0.7cm, 깊이 0.3cm~ 0.38cm의 소형이었다. 유물은

51) 沈奉謹, 朴恩貞 「韓國青銅劍 系譜와 그 同伴遺物」 『韓國上古史學報』 第10號. 1992.

적갈색 무문토기 2점과 회청색 연질토기 1점, 그리고 철검 1점이 석관 내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그리고 주위에서 유구석부(有溝石斧) 수점이 수집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철검과 토기의 특징을 참고하면 석관묘는 A.D. 1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림(16). 하일면 솔섬 석관묘 출토유물
(①유구석부 ②철검 ③회백색연질주머니호)

다. 고성읍 동외리(東外里) 패총

동외리패총은 1968-71년 국립중앙박물관, 197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에 의해 3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구릉 정상부를 조사하였는데 김해식토기 설정을 위한 적갈색·연·경질토기와 회청색 연·경질토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음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사는 정상부의 남쪽 사면에 위치했던 패각층 훼손에 대한 긴급수습조사였다. 마지막 진주박물관도 전기한 중앙박물관 조사와 연계해서 정상부를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패각층 아래에서 새무늬 청동기와 함께 의례공간과 광장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목되었다. 여기서는 비교적 유구와 유물이 다양하게 확인된 동외리 404번지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적은 고성읍내에서 통영시로 통하는 도로 좌측 해발 40m 정도의 당산이라는 구릉위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당시 구릉 정상부는 평평한 대지상으로 모두 밭으로 활용되고 그 서남 사면에도 패각층을 개간해서 역시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 1974년 6월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천도교 교인들이 당산 서남쪽 사면의 밭을 매입하여 교회당 신축공사를 실시하던 중 깊은 퇴적층을 가진 패각층과 함께 청동기, 토기 등 각종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지하였다. 당시 고성군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곧장 조사단을 구성하고 긴급수습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곳에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969년과 197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당산 정상부 밭에

대한 부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동아대학교의 수습조사는 조사범위도 협소하고 2주 정도라는 조사기간도 짧아 정밀조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조사당시 확인된 패각층은 약 2m정도 두께였고 문화층의 구별이 어려운 단순층이었다. 주변 잔존부위의 퇴적상태를 참고하면 훼손 이전의 퇴적상태는 표토층, 패각층, 흑갈색부식토층, 생토층 순서였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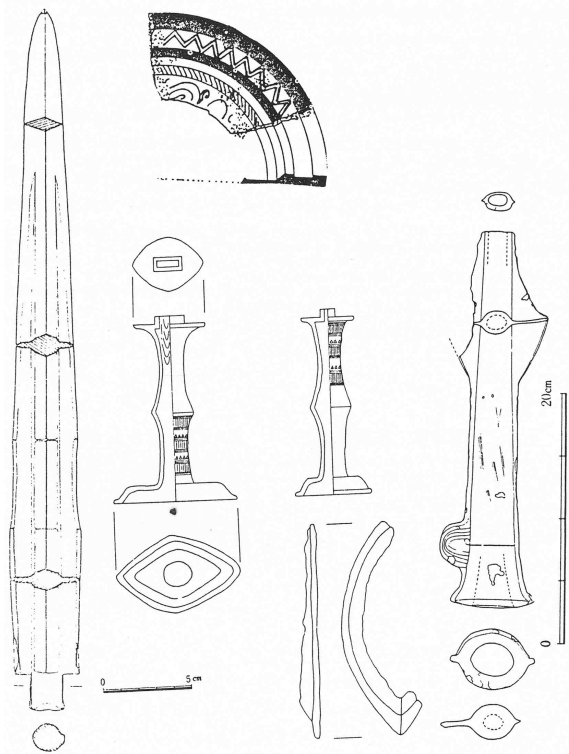
그러나 경작층에 해당하는 표토층은 이미 훼손되었고 그 아래의 패각층과 부식토층, 생토층만 확인되었다. 중간의 패각층은 굴, 백합, 꼬막 등 염수패각이 중심이었으며 그 속에는 파손된 옹관 파편을 비롯해서 각종 토기편, 철기편, 청동기편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패각층 아래의 흑갈색부식토층은 패각층 형성 이전의 구지표층(舊地表層)으로서 여기에는 야철지(冶鐵址)를 비롯한 토광묘, 석관묘 등의 제철과 관련된 유구와 분묘 유구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 생토층에서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 유적은 패각층 하부의 부식토층 문화단계의 주민들이 패총을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들의 생활 중심지는 당산 정상부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확인된 유구와 유물들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구는 패각층에서 할석과 판석으로 조립한 상자형 석관묘와 옹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옹형 토기편이 발견된 정도이고 그 아래 흑갈색부식토층에서는 야철지와 토광묘가 각각 발견되어 층위상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위쪽에서 발견된 석관묘는 길이 200cm, 폭 20cm, 깊이 16cm의 소형으로 그 속에서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1점이 출토되었다. 소형 석관을 감안하면 피장자는 소아거나 아니면 세골장과 같은 2차장을 이용한 성인이었을 것이 짐작되었다. 그리고 옹관편은 서북 구주지방 야요이식토기 가운데 후기 전반대로 편년하는 서신(西新)식과 매우 닮은 것이었다. 또한 부식토층에서 발견된 토광묘는 적갈색 생토층을 장타원형으로 굴착하고 그 속에 머리를 동향하게 신전장(伸展葬)한 상태였다. 묘실 내에 잔존한 인골편의 감정결과 피장자는 신장 170cm~174cm 정도의 30세 이상 성인 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광묘 내에서 적갈색 무문토기와 골촉이 출토되어 이를 참고로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유구라는 짐작이 가능케 하였다. 야철지는 패각층 바닥과 흑갈색부식토층이 만나는 부분에서 오목하게 파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부식토층 표면에는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불록불록하게 돌기 된 흙기둥이 남아있었다. 제철과 관련된 흔적은 분명하지만 주조, 단조 등 구체적인 작업공정은 파악하기 힘들었다. 인접한 창원 성산패총이나 부산 동래패총에서도 같은 형태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당시 확인된 유구의 규모는 길이 3m, 폭 1.5m이고 점토의 두께는 2mm에서 5mm정도였는데 최소한 패각층 퇴적 이전에 사용된 것은 분명했다.

다음 패층에서 수습된 유물은 청동기와 토기, 철기, 골각기, 탄화곡물 등이다.

그중 청동기는 광형동모편(廣形銅鏃片)과 청동제검과수편(靑銅製劍把手片), 한경편(漢鏡片)이며 모두 패각층에서 수습된 것이다. 그 중 동모편은 일본 구주지방 야요이문화 중기 이후로 편년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고 과수부는 구주지방이나 김해 양동리(良洞里), 창원 다호리(茶戶里)유적에서 철검과 함께 출토되는 것과 닮은 것이다. 그리고 한경편은 과편 이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전한 또는 후한전기로 편년되는 중국경 이어서 주목되었다.⁵²⁾ 철기는 패각층에서 소도자가 수습되었고 골각기는 토광묘 인근 주변에서 골촉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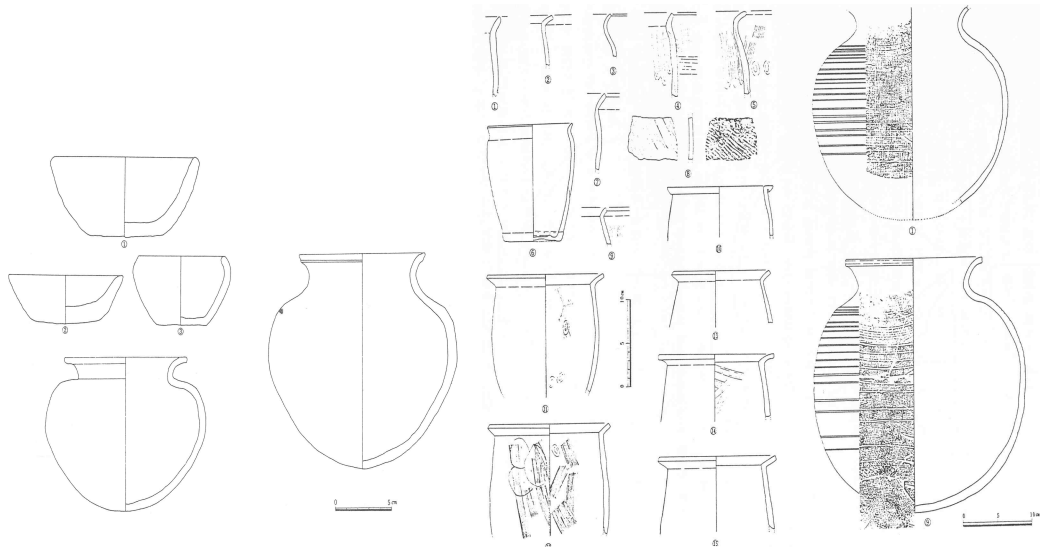


그림(17). 동외리 패층 출토 청동기와 하이면 석지리 출토 동검

토기는 패각층과 토광묘에서 적갈색 연경질 토기가 다수 수습되었는데 적갈색 토기 가운데는 우리나라 무문토기와

함께 구주지방에서 야요이시대 후기로 편년하는 토기편들도 혼재하고 있었다. 회청색토기의 경우 표면에 타날문이 새겨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간혹 인문토기(印文陶器)편도 혼재하고 있었고 탄화곡물은 흑갈색부식토층에 해당하는 야철지로 추정되는 바닥면에서 탄화(炭化)된 쌀과 밀이 함께 수습되었다. 이 탄화미의 경우 장폭비 2.0이하의 단립형(短粒型)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패각층 형성시기 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적으로 1995년 진주박물관에서 과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정상부의 다른 구역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패각층 아래 부식토층의 수혈 유구에서 청동제 새무늬장식구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최근 동일한 것이 전남 나주지역에서 2세기대로 편년되는 고분에서 출토되어 양 지역간 상호교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편년 검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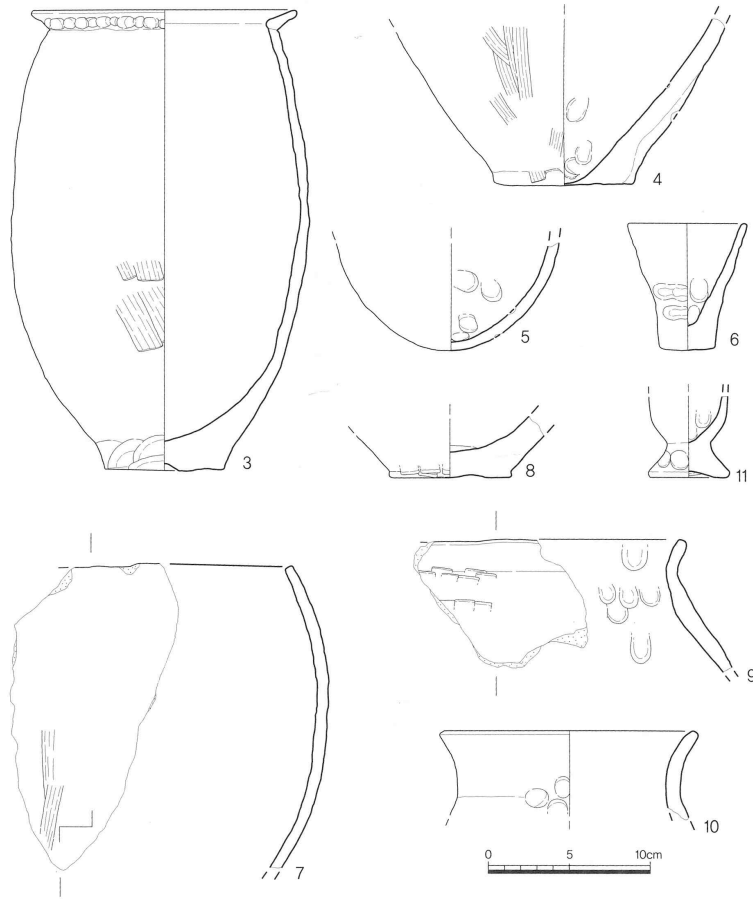
52) 沈奉謹「固城 東外洞具塚 出土 彌生系 遺物」『石堂論叢』第27輯. 東亞大學校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8.



그림(18). 동외리 폐총 출토 토기

라. 송학리(松鶴里)309-1번지 유적

2010년 고성도서관 신축부지 발굴조사에서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주거지는 시굴조사과정에서 일부 훼손되었다. 잔존부위에 의하면 평면 말각방형으로 한쪽 모서리에 단상의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선반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어깨선 부분을 평평하게 남겨두고 그 주변을 굴착한 형태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나 곡식과 같은 것을 올려놓는 대상시설로 이해된다. 이런 시설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에 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340cm 폭 290cm 깊이 20cm이다. 수혈 4기는 남동방향으로 열을 지어 나타나고 개중에는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용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다. 주혈이나 구근식물 저장을 위한 구덩이로 추정되었는데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유물은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는 적갈색연질의 호형토기와 옹형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컵형과 대부잔(臺附盞)이 혼재하고 있었다. 적갈색연질의 옹형토기 가운데는 구연부 외벽에 삼각점토대를 보강하는 특징을 가진 후기 무문토기를 계승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섞여있어 주목되었다. 조사자는 이 유적을 2세기 중반이후로 편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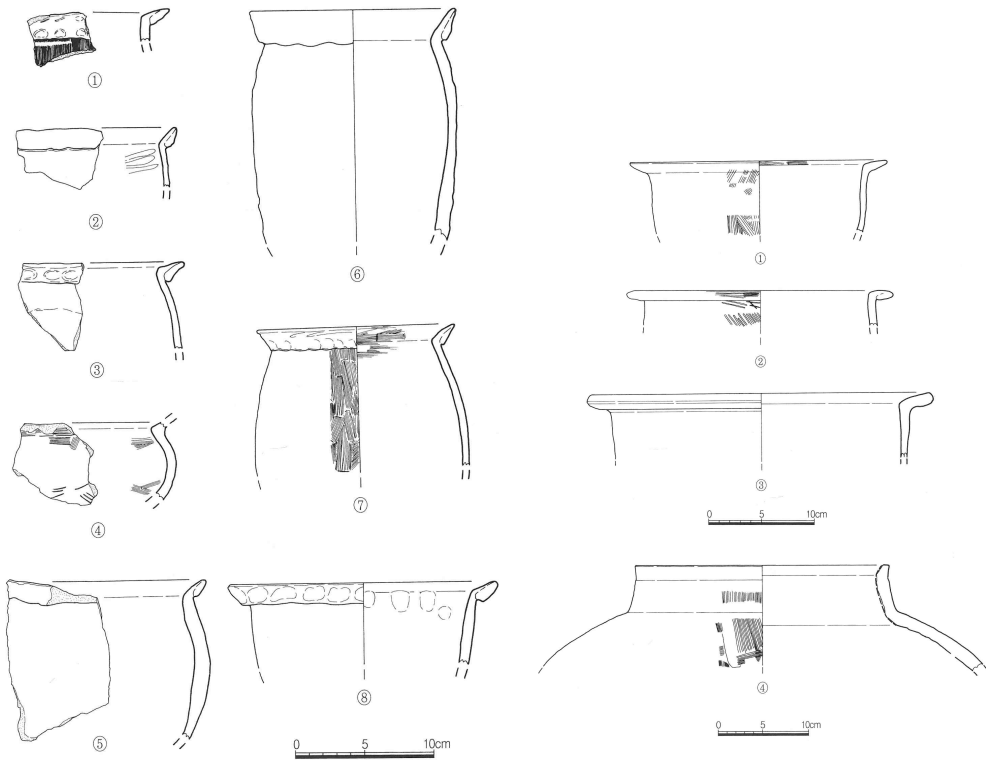


그림(19). 송학리 수혈 1호 출토유물 및 수습유물

마. 고성 성내리(城內里)유적

고성읍내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 발굴조사에서 고성읍성 체성일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체성 내부에 위치했던 건물지 확인을 위해 조사구역에 포함된 전체지역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I, II, III, IV의 4지구로 나누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조선시대 읍성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용도미상의 초기철기시대 수혈만 확인되었다. 그중 I 지구에서는 수혈 어깨선 일부만 남은 것이 2개소에서 확인되고 그 주변에서 정형성 없는 수혈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났다. 수혈은 모두 둥근 어깨선과 평평한 바닥을 가진 것이 일부 나타났는데 1호의 경우 어깨선 일부와 무질서한 수혈을 가진 바닥면이 남아있고 2호는 바닥 동쪽에 소토층(燒土層)이 남아있었다. 유물은 1호 바닥면에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고 2호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후대에 혼입된 것으로 보이는 소가야 고배편도 함께 수습되

었다. II지구는 좁은 삼각형 평면을 가진 구역으로 높은 서쪽에서는 용도미상의 구상유구와 주혈이 무질서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동쪽에는 일부 흔적만 남은 어깨선과 함께 바닥 일부와 소토유구가 확인되었다. 수혈내부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III지구에서는 근대 우물과 수혈로 추정되는 유구 1기와 작은 수혈들이 확인되었다. 이 1호 수혈 내부에서 삼각형 점토대구연을 가진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IV지구에서는 근대건축물과 관계되는 유구만 확인되고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20). 성내리 III지구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이와 같이 성내리유적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은 인접한 동외동 패총을 비롯해서 송학리유적 등과 함께 초기철기시대 문화양상과 상호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평가된다. 특히 수혈의 용도는 자세하지 않지만 내부에서 수습된 늑도식 토기의 등장은 남해안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교류 내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늑도유적에서 중국 청동제품과 일본에서 유행하는 토기편이 출토되고 동외동 출토 청동유물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내리유적에서도 확인 가능하게 되

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되는 점이다.

바. 고찰

지금까지 고성군내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가운데 먼저 성내리유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내리유적에서는 유구의 성격은 자세하지 않지만 당시의 생활유적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수습된 토기 가운데는 삼각형 점토대구연을 가진 말기 무문토기와 일본 구주지방 야요이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수구식(須玖式)토기와 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토기는 전기한 바와 같이 초기철기시대 초기에 한국식동검과 함께 출토되는 원형점토대토기 다음 단계에 출현하는 토기이다. 사천 늑도유적에서 집중출토되어 우리들은 흔히들 늑도식토기라 명칭하고 있다. 늑도유적에서도 늑도식토기와 함께 일본 야요이시대 중기의 수구식토기가 동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성 성내리유적과 사천 늑도유적이 동일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사천 늑도유적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유물 외에도 오수전, 반량전, 낙랑토기 등 중국계 유물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내동유적은 소규모 조사에 불과하였지만 유물의 특징 등 그 조사 성과는 고성지역 초기철기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석지리에서 수습된 한국식동검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의 특징을 가진 유물로 평가된다. 다음은 송학리유적이다. 선반을 가진 수혈식주거지와 용도미상의 수혈이 발견되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역시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은 수습된 무문토기이다. 무문의 용형으로 분류되는 토기 가운데 구연부 외벽에 전기한 삼각형 점토대가 생략되면서 그 자리에 지두만 남기는 특징은 시기적으로 늑도식토기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송학리유적은 성내리유적 다음으로 편년할 수 있어 그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일면 송천리 석관묘도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회청색연질의 주머니형 토기와 적갈색 연질 무문토기, 세형철검의 출토는 그 특징에서 후기 무문토기 단계에서 회청색 연질토기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사군 설치후 낙랑을 통한 한식(漢式)토기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야요이시대 중기후반 또는 후기 전반대로 편년하는 대마도 석관묘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양 지역간 문화교류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은 동외리패총이다. 비록 수습조사로서 끝났지만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초기철기시대 문화양상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삼국간의 문화교류 관계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중 토기는 전기한 성내리나 송학리의 연질무문

토기와는 다르게 경질의 적갈색토기와 회청색토기가 출토되어 토기의 특징상 전대와 계승관계가 동떨어진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기한 송천리 석관묘 단계가 그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남부지방의 경우 늑도유적에서 먼저 시작되고 고성지역으로 전파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외리유적 단계에서 더 큰 변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자미동국의 성립과 함께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관계가 전개되면서 서한경(西漢鏡), 청동광봉모 등 국제성을 가진 유물이 출토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청동광봉모, 서신식(西新式)옹관토기편 등 일본과 관련된 유물의 집중은 지리적으로 고성반도가 바다를 교통로로 하는 동북아시아역 항구 역할이 장점으로 등장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남해안의 사천 늑도를 비롯해서 김해, 남해, 전남 해남 등지의 패총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성내리유적을 기원전 2세기로, 송학리유적을 기원전후 1세기로, 고성패총을 기원 2~3세기로 각각 편년하면 3세기에 작성된 삼국지의 고자미동국(古資彌東國)의 등장은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오늘날의 고성읍 내를 중심으로 그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주민들은 벼농사를 짓고 철을 제련하며 인접국인 일본, 중국과도 교류하는 등 반도지형의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고자미동국을 대외에 과시하는 독자적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